성악가 – A부터 Z까지

David Patmore

클래식 성악계의 역사를 총망라한 인물사전

실로 놀라운 기획이라 할 수 있는 이 세트는 같은 제목의 책과 음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데이비드 패트모어가 카루소, 칼라스, 파바로티, 닐손, 빈트가센, 피셔-디스카우 등 클래식 음악계를 주름잡은 전설적인 성악가 300여 명을 ABC 순으로 정리한 뒤 각각의 약력과 추천 녹음을 기재한 일종의 인명사전으로, 8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다. 여기에 딸린 네 장의 음반에는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악가 70명의 음원이 역시 ABC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내지에 적힌, 추가 음원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도 놓치지 마시길.

8.558097–100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3 & 17
Idil Biret(pf)
London Mozart Players
Patrick Gallois(fl)
73세 노대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모차르트 협주곡 녹음

8.571306

바체비치:
현악 사중주 2, 4, 5번
Lutoslawski Quartet
한 폴란드 여성 작곡가가 보여주는 다채로운 작품 궤적

8.572807

메시앙:
미를 위한 시, 땅과 하늘의 노래, 보칼리제–에튀드
Hetna Regitze Bruun(sop)
Kristoffer Hyldig(pf)
종교에 가깝게 승화된 메시앙의 사랑 고백

8.573247

레오 브로우어: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음악
Brasil Guitar Duo
반 세기에 걸친 기타 이중주 레퍼토리에의 공헌

8.573336

베토벤:
민요에 의한 변주곡
Patrick Gallois(fl)
Maris Prinz(pf)
갈루아의 손에서 화려하게 재탄생한 베토벤의 민요 변주곡

8.573337

시벨리우스:
'누구든지' 외
Leif Segerstam
Turku Philharmonic
Orchestra
시벨리우스의 숨은 걸작을 만나다

8.573340

야생의 땅:
관악 밴드를 위한 음악
Glen Adsit/The Hartt School
Wind Ensemble
21세기 관악 앙상블 음악의 최전선

8.573342

투리나:
마드리드의 장터, 마술 랜턴, 서커스 등
Jordi Maso(pf)
'알베니스의 후계자'가 펼쳐 보이는 다채로운 일상 생활의 풍경

8.573401

J.S. 바흐:
영국 모음곡 1~3번
Montenegrin Guitar Duo
바흐 '영국 모음곡' 기타 이중주 버전의 세계 최초 녹음

8.573473

에렌 쉬알프:
기타 독주곡집
Eren Sualp(guitar)
터키의 신예 기타리스트와 함께하는 20세기 기타 음악 세계 여행

8.573487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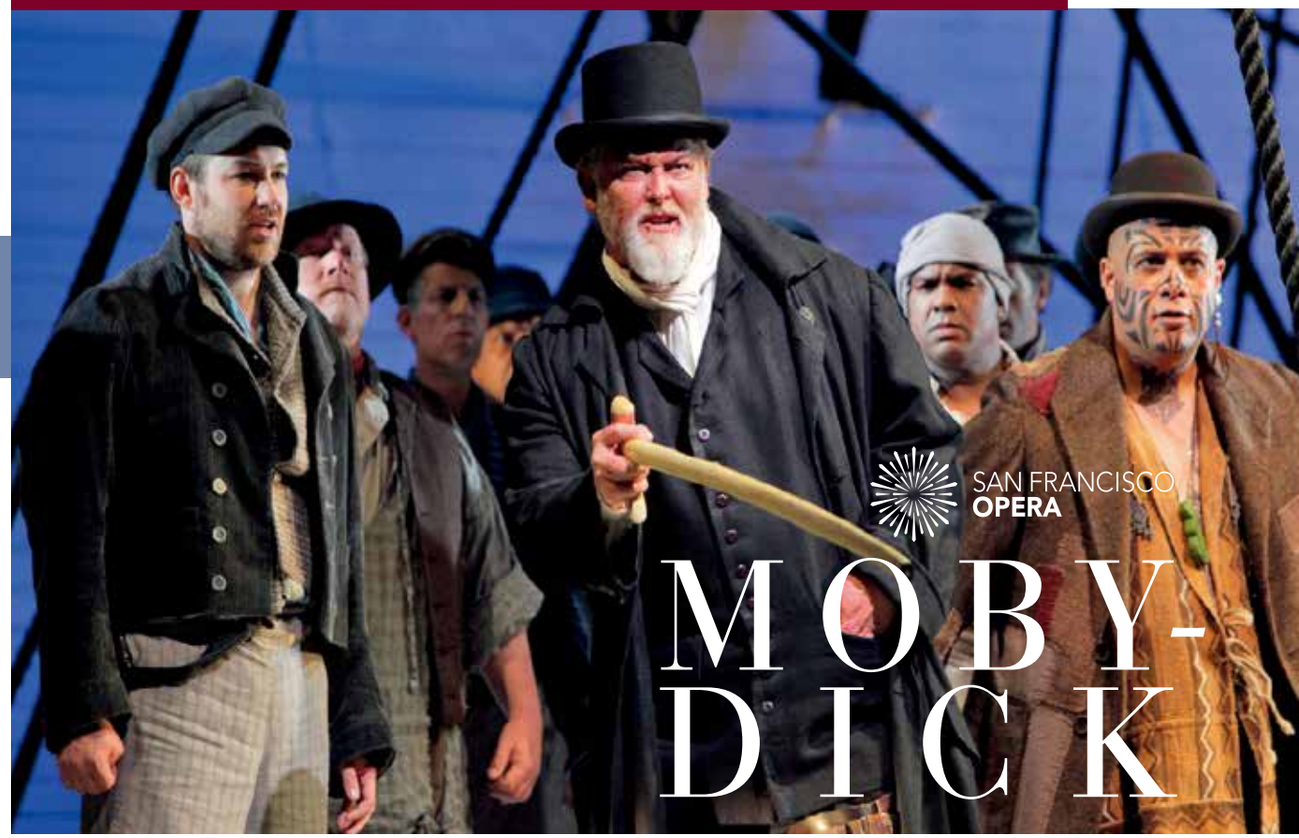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3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3호 | October 2015



***Hot Issue**

월드 뮤직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음악 8집 CD**

슬로시티에서 듣는 느리고 고운 사랑 노래 **담양 여행 2집 CD**

Accentus **다큐멘터리 '에릭사티와의 산책' DVD**

***Cover Story**

헤르만 멜빌의 소설 Moby Dick(모비 딕) DVD

헤르만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모비 딕(Moby Dick)** DVD를 한글 자막으로 국내에 선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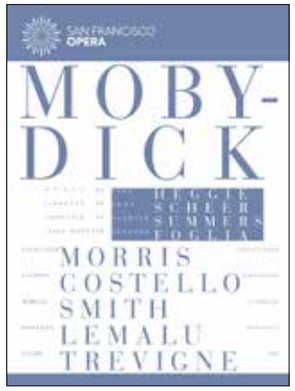
이 세계 초연 녹음에서, 그래미 수상 경력의 테너 제이 헌터 모리스는 헤르만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주인공 에이햅 선장 역을 맡았다. 모비딕 포경에 미쳐 선원들을 모두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명작의 열기가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작품으로 무대에 올려 진다. '데드 맨 워킹'의 작곡가 제이크기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진 쉬어의 대사는 무대 위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대사를 전달해 준다.

[해외 리뷰]

프랭크 자마코나의 영상은, 레오나드 포이야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감동적인 힘을 고스란히 포착하고 있다. 패트릭 서머스의 노련한 캐스팅과 탁월한 리더쉽은 보컬뿐만 아니라 극적인 요소에서도 최고의 앙상블을 보여준다.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 쥬디스 말라프론데, 오페라 뉴스

케네디센터 공연을 볼 수 없다면, 유로아트의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DVD로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다. 대형스크린으로 본다면, 오페라 극장에서의 현장감도 느껴질 것이다. 오페라 모비딕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즐길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에 함께 갔던 16살 딸아이도 매우 좋아했고, 집에서 DVD를 틀었을 때 14살, 9살 먹은 두 아이 역시, 엔딩크레딧이 끝날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 로버트 R 라일리

모비딕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중요 오페라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를 주제로 이미 정평이 난 오페라 '빌리 버드' Billy Budd), '사랑은 저 멀리'(L'amour de loin)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작품이다.
– 그라모폰 매거진, 2014년2월 – 에디터즈 초이스



ADVD–066 **[DVD]**

[포맷]

* TV FORMAT: NTSC 16:9
* SOUND FORMATS: PCM STEREO, DD 5.1, DTS 5.1
* Subtitles: English/ Deutsch/ Francais/ Korean
* TOTAL RUNNING TIME 142 MINS
* Region Code: 3

[줄거리]

– 1 막 –

포경선 피쿼드호가 출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갑판 아래, 작살꾼 퀴퀘그의 기도가 고독한 신참을 깨운다. 아침이 밝아오고, 선원들이 돛을 올리는 동안 스타벅, 스텁, 플라스크가 에이햅 선장 이야기를 한다. 낸터킷항을 떠난 후로 아무로 선장을 보지 못했다. 에이햅이 나타나서 선원들에게, 자신의 한쪽 다리를 앗아간 흰고래(백경) 모비딕 이야기를 한다. 모비딕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금화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금화를 돛대에 못 박는다. 이 고래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출항의 진짜 이유임을 설명한다. "모비딕을 죽이자"라는 구호에 모두 고무되지만, 일등 항해사 스타벅만은 회의에 빠진다. 불경스럽고 무의미한 짓이라고 에이햅 선장에게 항변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스타벅은 신참에게 포경의 위험을 알리고, 다시는 가족을 못 볼 것 같은 불안에 빠진다. 스텁이 고래떼를 발견하지만, 에이햅은 포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퀴퀘그와 신참은 망대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스타벅은 에이햅의 광기를 한탄한다.

3개월 후. 고래는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 스텁이 사환인 핍에게, 배 주위를 돌고 있는 상어떼 이야기로 농담한다. 선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판을 펼치지만, 그 동안 쌓인 긴장에 싸움이 벌어진다. 신참이 고래떼를 발견하자, 스타벅은 에이햅을 설득해 포경을 허락받는다. 스타벅, 스텁이 고래를 찌른다. 그러나 플라스크의 보트는 뒤집히고 핍이 실종된다. 선상에서 고래를 도살한다. 플라스크는, 핍을 찾고 있음을 에이햅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스타벅에게는 기름이 새고 있음을 알린다. 스타벅은, 가까운 항구로 가서 수리해야 함을 에이햅에게 건의하지만, 에이햅의 관심은 오직 백경뿐이다. 스타벅이 계속 건의하자 에이햅은 총을 꺼내 들고 그를 무릎 꿇게 한다. 갑판에선, 핍을 찾았다고 신참이 외친다. 에이햅은 스타벅에게 꺼지라고 명령한다. 선원들은, 퀴퀘그가 어떻게 핍을 구출했는지를 설명하는 신참의 말에 귀 기울인다. 신참은, 핍을 보살펴 달라고 스타벅에게 간청하지만 무시당한다. 선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인생을 배운 신참은, 퀴퀘그와 친구가 되기로 한다. 스타벅이 에이햅 선장실로 간다. 잠든 에이햅의 침대맡에 놓인 총을 들고, 에이햅을 죽이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고민한다. 악몽에 시달리는 에이햅의 고함소리에 정신을 차린 스타벅은 총을 놔두고 선장실을 빠져나온다.

– 2 막 –

1년 후, 폭풍이 다가오지만, 선원들은 즐겁게 노래 부른다. 망대에서는, 신참과 퀴퀘그가 퀴퀘그의 고향 섬으로 함께 갈 이야기를 하다가, 퀴퀘그가 갑자기 떨어진다. 갑판 아래로 옮겨진 퀴퀘그는, 곧 죽을 것이니 관을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폭풍우가 덮치고, 번개가 피쿼드호를 둘러싼다. 돛에서는 세인트엘모의 불꽃이 튀고, 에이햅은 이것이 백경을 찾게 해 줄 하늘의 계시라며 선원들을 안심시킨다. 다음 날 아침. 배는 폭풍우를 무사히 견뎠다. 저 멀리 레이첼호의 가디너 선장이 에이햅 선장에게 말한다. 폭풍우에 실종된 자신의 아들을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미쳐버린 핍은 그 아이를 봤다고 소리치지만 무시당한다. 자해를 한 핍이 에이햅에게 달려들어 피를 묻힌다. 가디너의 요청을 거절한 에이햅은 다시 항해를 명하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파괴한 비정한 신을 불평한다. 갑판 아래, 퀴퀘그를 위해 만들어지는 관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신참은 인간의 광기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면서 혼잣말을 한다. 갑판 위에선, 에이햅이 스타벅에게 40년 동안의 바다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에이햅은 스타벅의 눈에서 인간의 영혼을 느낀다. 이에 감동한 스타벅은,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에이햅을 설득한다. 스타벅의 말에 동의하려는 순간, 에이햅은 저 멀리 수평선에서 모비딕을 발견한다. 고래잡이 보트가 내려지고 추격이 벌어진다. 보트 2척을 파괴한 모비딕은 피쿼드호마저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모두 죽는다. 에이햅의 보트 역시 공격당하고 모두 물에 빠지지만 에이햅만이 모비딕과 대적한다. 작살을 던진 에이햅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며칠 후. 간신히 목숨이 붙은 신참이 퀴퀘그의 관을 잡고 떠다닌다. 멀리서 가디너가, 실종된 자신의 아들인줄 알고 부르지만, 이 젊은이 혼자만 살아남고 피쿼드호의 다른 선원들은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월드 음악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음악 8집 〈저녁에, 당신에게...〉

노을 지는 저녁 일상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불멸의 영화 음악, 프랑스 리옹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는 "La Boum"을 비롯하여 까에따누 벨로주의 "Ceu de Santo Amaro",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In Stiller Nacht", 리얼 그룹의 "Friendship", 로드 맥컨의 "You" 등 국내 미발매 음원들이 포함된 보석 같은 세계 월드뮤직 16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MC2-159

나의 저녁을 구성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남은 고단함, 쓸쓸함,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싶은 한숨,
이런 것들이 나를 늦가을 저녁 바람처럼 뒤흔들어도,
나를 살게 하는 건 '한 줌의 믿음'. 그 믿음의 정체는 바로 '당신' 입니다.

당신, 소금의 맛을 결정하는 건 3%의 불순물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97%의 순수한 무엇이 아니라 3%의 불순물이
나를, 당신을 결정할 지도 모릅니다.
나는 소금이 아니므로 3%의 고단함이나 쓸쓸함이
내 인생의 향기를 결정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97%의 당신이 있으니.....

소중한 당신, 저녁에 더욱 간절한 당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울컥하는 당신에게
꽃다발 대신 이 음악들을 보냅니다.

저녁에, 당신에게
꽃다발을 대신해
브라질에서 노르웨이까지
세상 곳곳을 담은
이 음악을 드립니다.

[수록곡]

01 La Boum
/ L'Orchestre National de Lyon (Cond. Vladimir Cosma)
02 Ceu de Santo Amaro/ Flavio Venturini & Caetano Veloso
03 Friendship/ The Real Group
04 Ciao Ninin/ Fabio Concato
05 In Stiller Nacht/ The Idan Raichel Project (Ft. Andreas Scholl)
06 Passage of the Heart/ Omar Akram
07 Alexandria/ Evanthia Reboutsika (Ft. Caroline Lavelle)
08 Den Tara/ Skruk
09 Oblivion/ Tomeu Estaras
10 Waltz/ Kari Bremnes
11 Fields of Gold/ Arild Andersen, Frode Alnaes, Stian Carstensen
12 Skye Boat Song/ John Boswell
13 Danny Boy/ Aoife Ni Fherraigh
14 Dap/ Sigvart Dagsland
15 Winter's Dream/ Paul Winter
16 You/ Rod McKuen

슬로 시티에서 듣는
느리고 고운 사랑 노래 '담양 여행 2집'

여행은 어디나 두번째 방문부터가 진짜야!
기다렸던 담양 여행 2집! 월드뮤직전문가 시인 임의진이 고른 국내여행 시리즈.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담양군 창평 삼지내 사운드 트랙. 이무하의 목가적인 숨은 노래와 캘티 말론, 에셔 퀸의 절창.
포르투갈의 엘더 모티뉴, 브리티시 포크의 전설 바스티 번얀이 함께 노래한 타임, 그리스의 판테리스 타라시노스,
노르웨이어로 듣는 오버 더 레인보우, 귀에 낯설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여행과 사랑의 노래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AMC2-158

성원을 힘입어 2집을 안겨드리게 되었다. 이번엔 슬로 시티를 찾아간다. 천천히 느리게 걷는 사람들, 바쁜 일상을 떠난 순례자를 위한 노래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유럽에서 가장 느린 도시,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의 한 호텔방. 반바지 차림으로 걸터앉아 몇 자 적자니 내 산골 작업실이나 음반사 귀퉁이에서 시작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글이겠구나 싶어진다. 알프레드 되블린의 장편소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첫 페이지나 같은 글, "이 글은 담양에서 밭을 일구며 음악을 듣는 시인에 관한 보고서이다"로 시작하는 그 멋진 문장 말이다.
멀리서 그리워하기, 오히려 멀리서 팔짱을 낄 때 진실은 보이기 마련이다. 여행은 오늘로 보름째, 내가 다시 짐을 꾸리고 산골집에 돌아간다면 먼 곳 베를린에서 담양으로 여행가는 격이리라. 아름다운 아리랑의 땅. 내 침대와 악기와 그릇과 커피 내리는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는 작업실... 시골에서 내가 허물없이 머물듯 내 사랑하는 노래들도 익명의 친구들이다. 유명한 가수의 빌보드 차트가 아닌 인디이거나 집시이거나 숨은 무명의 가수들, 소소한 이웃의 노래. 그런 노래에서야 진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당신의 소박하고
쓸쓸한 여행에
여기 촉촉한 노래들이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바랄 따름이다.
오직 당신을 위한
따스한 시편.

[수록곡]

01 Always Racing Back There/ Kelti Malone
02 Don't Fall in Love While Time Traveling/ Shane Palko
03 An Irish Lullaby 아일랜드 자장가/ Harry O'Donoghue
04 Den Tragoudietai I Omorfia 아름다움을 노래하네/ Pantelis Thalassinos
05 Le Facteur 우편배달부(Manos Hadjidakis 곡)/ Asher Quinn
06 The People's Highway/ Tim Grimm
07 London Lights/ Maz O'Connor
08 The Bag Of Aeolus 아이올로스의 가방/ Avgeris Tsironis
09 Over Regnbuen(Over The Rainbow)/ Jorn Simen Overli
10 Ao Trovador 유랑가수/ Helder Moutinho
11 Bamboo 대나무(Peter, Paul & Mary 곡)/ Melita Doostan
12 Bohemians 보헤미안/ Taras Shuplat
13 Time(feat. Vashti Bunyan)/ We or Me
14 Hold meg, slipp meg(Hold Me Tight, Let Me Go)/ Ellen Sofie Hovland
15 거기서 우리/ 이무하
16 Tristesse 슬픔을 노래하네(LP Version)/ Tino Rossi

Naxos

www.naxos.com

8.573398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21번 (실내악 버전)
Alon Goldstein(pf)/ Fine Arts Quartet

현존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7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두 인기작인 20번과 21번 '엘비라 마디간'을 아기자기한 실내악 버전으로 수록한 음반. 작곡가 이그나츠 라흐너(1807–95)의 이 편곡은 피아노 독주 파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관현악 반주만을 현악오중주(현악사중주 + 더블베이스)를 위해 옮겨 놓은 것으로, 본 신보가 이 버전의 세계 최초 레코딩이다.

8.573440
바로크 모멘츠 (기타 듀오로 연주하는 헨델, 비발디, 바흐 외)
Amadeus Guitar Du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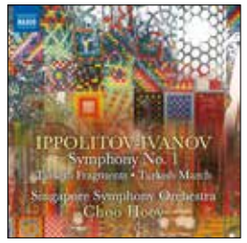
아마데우스 기타 듀오가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걸작들에 도전하였다. JS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과 샤콘느, 헨델의 샤콘느 G장조, 비발디의 인기협주곡인 류트협주곡RV.93을 두 대의 기타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음향으로 만나볼 수 있다. 프랑크가 바흐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완성한 프렐류드, 푸가와 변주곡, JS 바흐가 편곡한 하슬러의 코랄 'Mein Geist ist mir verwirret'도 함께 수록하였다.

8.573300
시벨리우스: 벨사자르의 잔치, 서곡 E장조 외
Pia Pajala(sop)/ Leif Segerstam/ Turku Philharmonic Orchestra

시벨리우스의 작품 목록 중에서 교향곡이나 교향시들 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무대를 위한 작품들이다. 그는 단 한 편의 오페라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연극을 위한 걸출한 극부수음악들은 완성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벨사자르의 잔치'다. 이와 함께 그의 극초기 관현악 작품들인 서곡 E장조와 발레의 장면, 그리고 미뉴에트, 행렬(Cortege), 결혼행진곡 등의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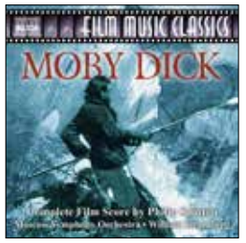
8.573323
베크: 6개의 교향곡 Op.2
Kevin Mallon/ Thirteen Strings Chamber Orchestra

소위 '장군들의 군대'라 불리던 만하임 궁정 오케스트라의 멤버였던 프란츠 이그나츠 베크(1734–1809)는 1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교향곡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펼쳤전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의 Op.2를 구성하고 있는 여섯 편의 신포니아들은 비록 소편성을 위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교향곡들에서 보기 드문 대담한 화성법과 창의적인 선율진행을 보여준다.



8.573508
이포리토프–이바노프: 교향곡 1번, 터키 단편들
Choo Hoey/ Singapore Symphony Orchestra

코커서스 스케치'로 유명한 미하일 이폴리토프–이바노프(1859–1935)는 림스키–코르사코프를 사사했으며, 모스크바 음악원의 원장으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었다. 그는 소아시아와 코커서스의 향토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터키 단편들' 역시 그의 이런 측면이 발현된 작품이다. 그의 교향곡 1번은 종교음악과도 같은 장엄함이 깃든 작품으로, 러시아의 교향곡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8.573367
생통: 모비 딕
William Stromberg/ Moscow Symphony Orchestra

거장 존 휴스턴은 1956년에 헤르만 멜빌의 유명한 소설 '모비 딕'을 영화로 만들었다. 이 영화의 음악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했던 비올라 연주자 겸 작곡가인 필립 생통(1891–1967)이 맡았는데, 그가 완성한 스코어는 이후 오래도록 최고의 바다음악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본 음반은 존 모건과 윌리엄 스트롬버그가 함께 복원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8.573438
마르투치: 피아노트리오 1,2번
Trio Vega

주제페 마르투치(1856–1909)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음악계의 중요한 관현악 작곡가로, 오페라에만 편중되어있던 자국의 음악 전통에 독일 후기 낭만주의 기악음악을 접목시키는 쪽에 큰 업적을 세웠다.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피아노트리오 역시 브람스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로, 작곡가 특유의 빼어난 선율감각까지 더해진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8.573533
불멸의 요소 (캐나다 현존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
Julie Nesrallah(ms)/ Gryphon Trio

캐나다 현존 작곡가들의 피아노트리오를 위한 작품들. 커런트의 'These begin to catch fire'는 무스코카 호수에서 본 석양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스태닐랜드의 '하지의 노래'는 작곡가 스스로 '소리의 시'라 불렀던 작품이다. 외스터를의 'Centennials'는 2012년에 100번째 생일을 맞은 세 사람을 소재로 하였으며, 라이트의 '불멸의 여인을 향한 편지'는 제목 그대로 베토벤의 유명한 연서에서 영감을 얻었다.

8.572806
바체비치: 현악사중주 1,3,6,7번
Lutoslawski Quar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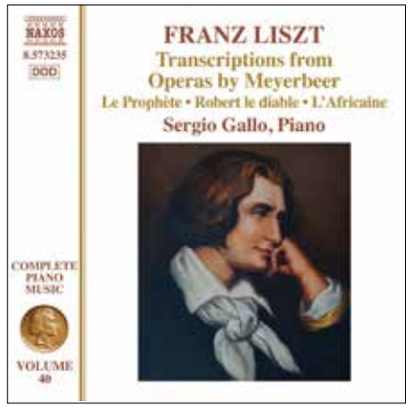
음악학자 아드리안 토마스는 바체비치의 현악사중주들을 두고서 "20세기 폴란드 실내악 중에서 비길 것이 없는 작품들"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파리 음악원 유학시절의 작품인 1번에는 폴란드 민속음악에 대한 열정이, 3번에는 다성음악에 대한 노하우가, 6번과 7번에서는 과거 음악의 전통과 작곡가 당대에 대세를 이루던 새로운 음악사조를 조합하려던 작곡가의 노력이 엿보인다.

8.573305
밀란: 엘 마에스트로 1권
Jose Antonio Escobar (vihuela)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스페인 작곡가인 루이스 밀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후엘라 작품집인 '거장을 위한 비후엘라 작품집'을 후대에 남겼다. 류트와 기타의 중간 형태의 악기인 비후엘라는 서민층에서 유행했던 기타와 달리 귀족 사회에서 크게 사랑을 받았던 악기였다. 다성음악체계 안에서 즉흥적 악상을 담았던 판타지아와 파반을 통해 이 악기의 독특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8.573064
발라다: 피아노, 목관 그리고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첼로와 9연주자를 위한 협주곡 외
Enrique Graf(pf)/ David Premo(vc)/ Stephen Story etc./ Carnegie Mellon Wind Ensemble

레오나르도 발라다(1933년생)는 아방가르드 기법과 민족음악적 요소를 꾸준히 자신의 음악 속에 접목시켜왔다. 밴드를 위한 짧은 교향곡이라는 부제의 'Cumbres'에는 전기음악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피아노와 목관,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에는 클러스터 텍스처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았다. 역동적인 패시지로 점철된 10개의 목관을 위한 소나타와 서정적인 비올라협주곡이 함께 수록됨.



8.573235
리스트: 마이어베어 오페라 편곡들
Sergio Gallo(pf)

Naxos에서 진행 중인 리스트 에디션의 40번째 음반. 그랜드오페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어베어의 대표 오페라들인 '예언자', '악마 로베르', '아프리카의 여인'에 삽입된 여러 선율들을 리스트 자신의 화려한 기교로 재해석한 일곱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리스트를 비롯한 낭만파 비르투오조들의 화려한 작품들에서 특히 호평을 얻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세르조 갈로가 연주를 맡았다.

8.573375
카사블랑카스: 피아노트리오
B3: Brouwer Trio

베네트 카사블랑카스(1956년생)는 현재 스페인 음악계를 선도하는 주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음악세계에는 20세기 전반기 음악적 유산에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정교한 화성과 드라마틱한 구성이 더해져있다. 신보에는 몸푸를 추모하는 초기작품인 'Dos Apunts'에서 일본의 전통시를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최근 작품들인 '하이쿠 연작'에 이르기까지 30년에 걸친 그의 음악여정이 담겨 있다.

8.573117
빌라–로보스: 기타 필사본 3집
Andrea Bissoli(guitar)

1928년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세고비아는 빌라–로보스와의 첫 만남에서 그에게 기타를 위한 연습곡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이 12개의 연습곡이다. 신보에는 오리지널 필사본에 의한 연주로 수록되었다. 기타를 위한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란텔라'와 기타와 포크 앙상블로 연주한 'Guia pratico'로부터의 14개의 민요 편곡과 기타와 관현악을 위한 '꼬마의 연'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838
첸 이: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들
Sarah McKoin/ Texa Tech University Wind Ensemble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여류 작곡가인 첸 이(1953년생)는 극동의 음악적 전통을 서양 음악의 틀에 가장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신보에는 9/11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작인 'Tu', 목관 앙상블과 혼성합창을 위한 'KC 카프리초', 중국 전통 타악기와 관악기의 특성을 차용한 첼로와 목관을 위한 모음곡, 차오윈 동굴에서 영감을 얻은 초기작인 목관 오중주 등이 수록되었다.

8.570616
중국의 메아리
Susan Chan(pf)

중국 현대 피아노 작품의 다양하고도 독특한 매력을 담은 음반. 퓰리처상 수상자인 주 롱의 '피아노벨즈'는 풍경의 은은한 울림을 모티브로 완성한 작품이며, 도밍 람의 '친-준 마님의 탄식'은 중국의 옛 선율과 경극의 분위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래미상 수상자인 탄 둔의 '8개의 추억'은 중국 전통 음악을 음악적인 수채화 형태로 담백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8.555568
이베르: 레딩 감옥의 발라드
Adriano/ Slovak Radio Symphony Orchestra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작품에 기초한 '레딩 감옥의 발라드'는 이베르가 최초로 완성한 관현악 작품으로, 원작에 내재된 광기와 공포를 훌륭히 음악적으로 표현해내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고풍스런 음악스타일로 그려낸 '엘리자베트 모음곡'과 인상주의적인 악풍을 담은 교향시인 '페리크', 전쟁의 공포를 표현한 '광기의 노래'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Marco Polo 음원 재발매.

8.573335
체르니: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
Kazunori Seo(fl)/ Makoto Ueno(pf)

베토벤의 제자였던 카를 체르니는 당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비르투오조이자 피아노 교본의 완성자로 유명하다. 그는 피아노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방대한 작품을 완성하였는데, 신보에는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그가 완성한 매력적인 실내악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로시니와 벨리니의 유명한 선율에 기초한 3개의 론도, 두 악기의 화려한 기교가 빛나는 듀오 콘체르탄테 등을 수록.

8.573357
마이어: 피아노사중주
Silesian String Quartet

폴란드의 현존 작곡가 크지스토프 마이어(1943년생)를 대표하는 장르는 교향곡과 현악사중주이지만, 기타 장르의 작품들 중에서도 주목할만한 작품들이 다수 있다. 몇가지 대조되는 섹션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악장 구성의 작품인 피아노사중주와 브람스의 실내악을 연상케 하는 장대한 규모의 작품인 피아노오중주가 본 신보에 함께 수록되었다.

8.573373
카밀레리: 지중해
Miran Vaupotic/ Malta Philharmonic Orchestra

찰스 카밀레리(1931-2009)는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몰타 출신의 작곡가다. 그의 피아노협주곡 1번 '지중해'는 로맨틱 협주곡의 전통 속에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의 향토적인 색채를 적절히 삽입한 작품이다. 자국의 음악적 특성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관현악작품인 '말타 모음곡'과 아코디언의 기교적인 특성을 적극 활용한 아코디언과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3406
베르거: 실내악작품집
The Berger Trio

로만 베르거는 1930년 체코 인접의 폴란드 국경도시인 치에신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가족은 폴란드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슬로바키아에 정착하였고, 그 역시 슬로바키아 음악계의 중요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신보에 수록된 그의 실내악들은 아내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과의 이별의 아픔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로, 실제 삶의 드라마가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그려졌다.

8.571367
맥케이브: 피아노음악
John McCabe(pf)

존 맥케이브(1939-2015)는 작곡가와 피아니스트 양 방면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활약상을 보였던 영국의 음악가다. 그의 피아노작품들에는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담겨있는데, 신보에는 라흐마니노프가 연상되는 변주곡과 그의 가장 큰 규모의 피아노 작품인 하이든 변주곡, 다양한 특징의 다섯 악장들로 구성된 바가텔 연작, 그리고 화려한 기교를 요하는 3편의 연습곡이 수록되었다.

8.571368
주버트: 즉흥적인 순간
William Boughton/ English String Orchestra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출신인 존 주버트(1927년생)는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이후, 작곡가와 음악교육자로서 영국 음악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관의 독창적인 활용이 인상적인 그의 대표 관현악곡인 신포니에타, D.H. 로렌스의 시에 기초한 연가곡인 'The Instant Moment', 마르셀 프루스트의 '스완네 집 쪽으로'에서 영감을 얻어서 완성한 변주곡인 'Temps Perdu' 등이 수록되었다.

8.573259
목관 앙상블로 연주하는 이탈리아 오페라
Patrick De Ritis/ European Wind Solo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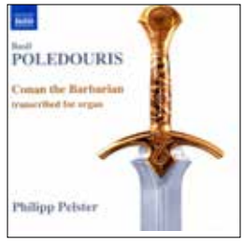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과 '라 체네렌톨라 서곡',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과 전주곡, 베르디의 '루이자 밀러 서곡'을 윈드 앙상블을 위한 마켈레 망가니의 편곡으로 수록한 음반. 푸치니의 '토스카'를 기반으로 한 망가니의 판타지와 안토니오 토리아니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 의한 디베르티멘토', 샤를르 트리베르와 외젱 장쿠르가 공동 편곡한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에 의한 판타지'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3301
시벨리우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Leif Segerstam/ Turku Philharmonic Orchestra

메테를링크의 희곡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는 드뷔시의 걸작 오페라로 유명하지만, 시벨리우스와 쇤베르크도 이 작품에 기초하여 각각 극부수음악과 교향시를 완성하였다. 시벨리우스는 이 희곡을 위해 모두 10편의 음악을 완성하였고, 그 중 9곡을 골라서 관현악모음곡을 간추렸는데, 신보에는 오리지널 10편 모두가 수록되었다.

8.573428
스태닐랜드: 토킹 다운 더 타이거
Ryan Scott(perc)/ Rob MacDonald(guitar)/ Camille Watts(fl)/ Frances Marie Uitti(vc)

1977년에 태어난 캐나다의 젊은 작곡가 앤드류 스태닐랜드는 가장 도전적이고도 독창적은 음악세계로 자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신보에는 전자음악과 어쿠스틱 악기의 음향을 절묘하게 매치한 그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다양한 타악기의 신비한 음향을 토대로 한 'Talking Down the Tiger', 플루트의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Flute vs Tape' 등을 수록.



8.573444
폴레두리스: 코난 더 바바리언
Philipp Pelster(org)

로버트 하워드의 판타지 활극을 기반으로 1932년에 완성된 존 밀러스의 영화 '코난 더 바바리언'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작품으로 유명하다. 미국 작곡가 바질 폴레두리스의 웅장한 OST는 그 영화의 마초적 매력을 더 한층 강하게 드러내었는데, 본 신보는 '코난 더 바바리언'의 OST를 오르간 독주를 위한 편곡으로 수록한 것이다.

8.570615
고돈 친: 교향곡 3번 '타이완'
Shao-Chia Lu/ Taiwan Philharmonic

고돈 친(1957년생)은 현재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음악 속에는 모국인 타이완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교향곡 3번 '타이완'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악장에는 격렬히 요동쳤던 타이완의 현대사가 드라마틱하게 묘사되고 있다. 셰익스피어, 파스칼, 사무엘 존슨 등의 문학을 인용한 표현주의적인 작품인 첼로협주곡 1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58097–100
성악가 – A부터 Z까지
David Patmore
클래식 성악계의 역사를 총망라한 인물사전
실로 놀라운 기획이라 할 수 있는 이 세트는 같은 제목의 책과 음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데이비드 패트모어가 카루소, 칼라스, 파바로티, 닐손, 빈트가센, 피셔-디스카우 등 클래식 음악계를 주름잡은 전설적인 성악가 300여 명을 ABC 순으로 정리한 뒤 각각의 약력과 추천 녹음을 기재한 일종의 인명사전으로, 8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다. 여기에 딸린 네 장의 음반에는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악가 70명의 음원이 역시 ABC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내지에 적힌, 추가 음원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도 놓치지 마시길.

8.571306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3 & 17
Idil Biret(pf)/London Mozart Players/Patrick Gallois(fl)
73세 노대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모차르트 협주곡 녹음
터키가 배출한 최고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레트의 협주곡 에디션 6집. 어렸을 때 알프레드 코르토와 빌헬름 켐프를 사사한 바 있는 비레트의 연주에는 근래의 피아니스트들에게서 느끼기 힘든 고풍스러운 고상함이 있다. 비레트는 녹음 당시 73세였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티 한 점 없는 단정하고 영롱한 연주를 들려주며, 원래 플루티스트이지만 여기서 지휘봉을 잡은 패트릭 갈루아의 생생하면서도 꾸밈없고 충실한 반주도 훌륭하다. 평생을 음악에 헌신한 노대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음반.

8.573336
레오 브로우어: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음악
Brasil Guitar Duo
반 세기에 걸친 기타 이중주 레퍼토리에의 공헌
쿠바 출신의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 레오 브로우어는 관현악곡에서 영화음악까지 폭넓게 작곡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타 음악이다. 특히 기타 이중주 레퍼토리에 그가 기여한 바는 헤아릴 수 없다. 다리우스 미요를 기리며 작곡한 '작은 단편들'(1957)에서 '여행자의 소나타'(2009)에 이르기까지 장장 50년의 세월에 걸쳐 있는 이들 이중주 작품은 브로우어의 다양한 작품 경향을 시기별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 곡마다 대단히 매혹적이고 다채로운 느낌을 전해준다. 주엉 루이스와 더글러스 로라는 섬세하면서도 현란하게 연주한다.

8.573337
베토벤: 민요에 의한 변주곡
Patrick Gallois(fl)/Maris Prinz(pf)
갈루아의 손에서 화려하게 재탄생한 베토벤의 민요 변주곡
베토벤은 1803년에 스코틀랜드의 조지 톰슨이라는 아마추어 음악가와 알게 되었다. 민요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던 톰슨의 요청으로 베토벤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웨일즈,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지의 민요에 기초한 일련의 변주곡을 만들었다. 베토벤은 플룻이 불완전한 악기라고 불평하면서도 아름답고 기교적으로도 충실하게 작곡했다. 그리고 갈루아가 18세기 초의 연주 관행에 기초해 즉흥 연주와 장식음을 풍부하게 덧붙여 만든 이 연주용 버전은, 베토벤이 다시 살아나 듣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세련되고 화려하다.

8.572807
바체비치: 현악 사중주 2, 4, 5번
Lutoslawski Quartet
한 폴란드 여성 작곡가가 보여주는 다채로운 작품 궤적
그라지나 바체비치(1909~69)는 20세기에 폴란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곡가이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카를 플레슈의 제자이기도 한 그녀의 작품 가운데는 실내악, 특히 현악 사중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악 사중주 2번'은 2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 작곡된 곡이지만 삶에 대한 긍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4번'은 작곡한 그 해에 작곡가에게 리에주 현악 사중주 국제 콩쿠르 일등상을 안겨준 걸작이다. '5번'은 '4번'의 신고전주의를 떠나 더 격렬하고 표현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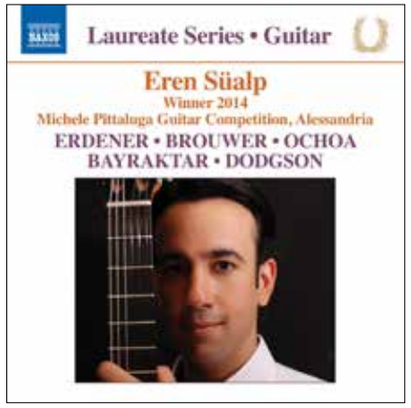
8.573247
메시앙: 미를 위한 시, 땅과 하늘의 노래, 보칼리제-에튀드
Hetna Regitze Bruun(sop)/Kristoffer Hyldig(pf)
종교에 가깝게 승화된 메시앙의 사랑 고백
메시앙은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자신의 첫 아내였던 클레르 델보를 '미'라고 불렀다. 그녀를 위해 쓴 첫 작품인 '미를 위한 시'는 아홉 곡으로 이루어진 가곡집으로, 작곡가 최초의 대작이다. 메시앙 특유의 풍부한 화성과 독특한 색채감이 결혼과 신혼 생활의 환희를 보여준다. 델보스가 아들 파스칼을 낳자, 메시앙은 가족 세 사람을 묘사한 '땅과 하늘의 노래'를 작곡했다. 브룬 힐디그 듀오는 정확한 가창과 연주로 두 작품 모두에 깃들어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에 가까운 초현실적인 느낌을 명료하고도 정감 있게 포착했다.

8.573340
시벨리우스: '누구든지' 외
Leif Segerstam/Turku Philharmonic Orchestra
시벨리우스의 숨은 걸작을 만나다
'누구든지'는 오스트리아 시인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오랫동안 함께 작업했던 후고 폰 호프만스탈이 쓴 희곡에 음악을 붙인 극부수음악이다. 시벨리우스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악마의 마수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룬 이 도덕극의 대사와 동작에 최대한 유의해 작품을 썼다. 이외에도 이 음반에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두 개의 진지한 선율'과 '인 메모리암'도 실려 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오래 전부터 최고의 시벨리우스 전문가로 손꼽히는 레이프 세게르스탐은 모든 곡에서 집중력 있고 잘 다듬어진 연주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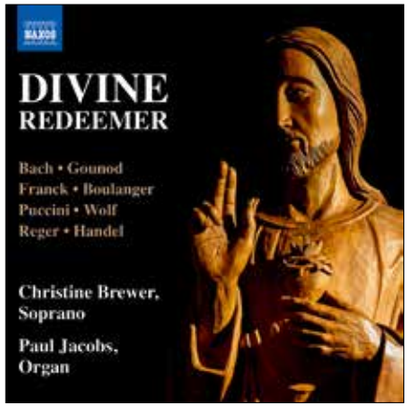
8.573342
야생의 땅 – 관악 밴드를 위한 음악
Glen Adsit/The Hartt School Wind Ensemble
21세기 관악 앙상블 음악의 최전선
관악 앙상블을 위한 음악은 20세기 후반부터 대단히 활발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스티븐 마이클 그릭의 '관악기와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2011)은 각 악장마다 서로 다른 기교와 표현을 요구하는 다채로운 작품이며, 수전 보티의 '야생의 땅'(2011)은 육중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단악장의 곡이다. 제스 랭스턴 터너의 '룸펠스틸츠헨'(2010)은 독일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환상적이면서도 불안정한 분위기가 지배한다. 하트 학교 관악 앙상블은 세 곡 모두 위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관되게 최고의 기량으로 연주한다.

8.573401
투리나: 마드리드의 장터, 마술 랜턴, 서커스 등
Jordi Maso(pf)
'알베니스의 후계자'가 펼쳐 보이는 다채로운 일상 생활의 풍경
카탈루냐 출신 피아니스트 조르디 마소가 진행하고 있는 투리나 피아노 음악 전곡 녹음 프로젝트의 11탄. 호아킨 투리나의 음악은 정신적 스승인 알베니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대부분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의 민요와 리듬에서 착상을 얻고 있다. 여기 실린 곡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마드리드의 장터'는 마드리드 축제일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그려낸 작품이고, '구두장이 가게에서'는 음악사상 가장 유명한 구두장이인 바그너의 한스 작스에서 발레 신발에 이르기까지 구두장이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8.573473
J.S. 바흐: 영국 모음곡 1~3번
Montenegrin Guitar Duo
바흐 '영국 모음곡' 기타 이중주 버전의 세계 최초 녹음
바흐의 건반악기 작품을 기타 독주용으로 편곡한 것은 19세기 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큰 인기를 끌었다. 몬테네그로 기타 이중주단의 두 멤버, 고란 크리보카피치와 다니엘 체로비치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영국 모음곡' 중 1~3번을 직접 기타 이중주용으로 편곡해 연주했다. 이런 편곡으로는 세계 최초 녹음인 이 음반에서, 이들은 과장이나 허세 없이 바흐의 원곡이 지닌 치밀한 짜임새를 최대한 살려내면서도 독특한 정감을 부여해 서정미까지도 느껴지는 연주를 들려준다.



8.573487
에렌 쉬알프: 기타 독주곡집
Eren Sualp(guitar)
터키의 신예 기타리스트와 함께하는 20세기 기타 음악 세계여행
터키 출신의 신예 기타리스트인 에렌 쉬알프는 2014년에 알레산드리아에서 열린 미켈레 피탈루가 기타 콩쿠르 우승자이다. 쉬알프는 이 음반에서 젊은 연주자답게 매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레퍼토리들을 연주하고 있다. 쉬알프는 터키 작곡가 투르가이 에르데네르의 '다섯 개의 그로테스크'와 에르투그룰 바이락타르의 '여섯 개의 아나톨리아 소품' 그리고 쉬알프 자신의 소품 '빗방울'뿐만 아니라 쿠바 작곡가 레오 브로우어와 베네수엘라 작곡가 루이스 오초아, 영국 작곡가 스티븐 도지슨의 작품에서도 독특하고 풍부한 감성이 깃든 연주를 들려준다.



8.573524
거룩하신 구세주
Christine Brewer(sop)/Paul Jacobs(org)
그래미상에 빛나는 두 음악가가 들려주는 경건한 음악들
그래미 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BBC 뮤직 매거진'이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20명'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는 크리스틴 브루어와 오르간 주자로는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폴 제이콥스가 여기서 만났다. 여기 실린 곡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음악은 아니지만 경건한 신앙심을 노래한 작품들이며, 이 점은 바흐의 '당신이 곁에 계시다면'부터 구노의 '오 거룩하신 구세주여', 혹은 나디아 불랑제나 막스 레거의 오르간 독주곡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녹음장소인 미국 밀워키의 제수 교회는 오르간의 힘차고도 달콤한 음색을 잘 살려주고 있다.

8.578317
더 베스트 오브 텐와 양
Tianwa Yang
20대의 명인 바이올리스트가 들려주는 개성 만점의 연주
올해 28세인 중국 바이올리니스트 텐와 양(우리식으로는 '양천와')은 네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열세 살 때 첫 음반을 냈으며 열네 살 때인 2001년에 유럽 데뷔 공연을 가졌다. 이후로도 성장을 거듭해 2014년에는 독일 음반 비평가상과 ECHO 클라식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음반에는 그녀가 낙소스에서 녹음한 사라사테와 이자이, 멘델스존, 피아졸라의 음원들이 수록되어 있다. 텐와 양은 어느 곡에서나 강렬하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다른 누구와도 다른 보잉으로 자신의 음악성을 한껏 펼쳐 보이고 있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400
크라이슬러 레코딩 전집 6집
Fritz Kreisler(vn)/ Various Artists
Naxos를 통해 복각 발매 중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어쿠스틱 레코딩 전집의 여섯 번째 음반. 어쿠스틱 레코딩의 마지막 시기인 1924년에서 25년 사이에 빅터 토킹 머신 레코드사를 위해 녹음했던 음원들이 워드 마스턴의 정성어린 복각을 통해 수록되었다. 타이스의 명상곡, 슬라브 춤곡, 파데레프스키의 메뉴엣, 헨델의 라르고, 그레인저의 해변의 몰리 등을 수록.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25
마리야 비도비치: Anmut – My Favorite Arias
Marija Vidovic(sop)/ Francisco Araiza/ Philharmonie Baden–Baden
사제간의 정이 낳은 아름다운 결실
소프라노 마리야 비도비치 자신이 좋아하는 아리아를 선곡해 부른 음반. 'Anmut'란 '우아함, 기품, 매력' 등의 뜻을 지닌 독일어이다. 비도비치는 2007년에 당시 이미 은퇴해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성악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던 왕년의 명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비도비치는 모차르트('후궁 탈출'과 '피가로의 결혼')에서 드보르자크('루살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풍부한 성량으로 안정적으로 노래하며, 제자를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은 아라이자는 신중한 태도로 비도비치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SM226
듀오 아르니칸스–쇼팽/도흐나니: 첼로 소나타
Duo Arnicans – Arta Arnicane(pf)/ Florian Arnicans(cel)
아르니칸스 커플이 탐구하는 쇼팽과 도흐나니의 첼로 소나타
듀오 아르니칸스는 독일계인 첼리스트 플로리안 아르니칸스와 라트비아 출신인 피아니스트 아르타 아르니카네가 결성한 이중주단이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현재 동거중이다. 이 음반에서 두 사람은 쇼팽과 도흐나니의 작품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도흐나니는 아마추어 첼리스트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첼로에 익숙해 있었고, 쇼팽의 음악에서 피아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악기가 첼로이다. 첼로 소나타로서는 비교적 변방에 속하는 작품들이지만 중요성이나 완성도 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작품들이다.

Ondine
www.ondine.net

ODE1271-2D
브람스: 피아노트리오 1-3번
Christian Tetzlaff(vn)/ Tanja Tetzlaff(pf)/ Lars Vogt(pf)

브람스가 남긴 3편의 피아노트리오는 낭만시대 실내악 분야의 핵심 레프트와로 사랑받고 있다. 20대 초반의 초기작인 1번에서 50대 중반의 3번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그의 음악스타일의 변화 또한 이 작품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각자 솔로 연주자로도 큰 명성을 누리고 있는 테츨라프 남매와 정상급 피아니스트 라스 포그트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위대한 걸작들의 매력을 유감 없이 드러낸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32
말러 : 교향곡 6번
Daniel Harding/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다니엘 하딩이 들려주는 21세기 말러 6번 해석의 최신판

2014년 3월 뮌헨 가스타이크 필하모니 실황. 하딩은 시종일관 담백하고 시원스럽게 나아가며, 번스타인, 텐슈테트 등 이전 지휘자들과는 달리 '비극적'이라는 표제에 구애되기보다는 음악 자체의 짜임새와 다이내믹 대비에 집중한다.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대단히 민첩하고 일사불란한 연주를 들려주며, 힘들이는 기색 없이도 엄청난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피날레에서는 뒤로 갈수록 집중력과 긴장감을 높여 연주한다. 2악장으로 배치된 안단테 악장의 선율미도 훌륭하다. 표지는 피날레 해머 타격 때 지휘자와 타악기 주자의 심장 박동을 표시한 것이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556 [SACD]
닐센: 3개의 협주곡
Nikolaj Znaider(vn)/ Robert Langevin(fl)/ Anthony McGill(cl)/ Alan Gilbert/ New York Philharmonic

알란 길버트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뉴욕 필의 음악감독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그와 뉴욕 필은 그리 많은 양의 레코딩을 남기지 못했지만, Dacapo를 통해 발매되었던 닐센 시리즈는 해외 유수의 전문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인 본 신보에는 작곡가가 남긴 3편의 협주곡들(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이 함께 수록되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www.rcolive.com

RCO 15003
브람스: 독일 레퀴엠
Mariss Jansons/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실내악적이면서도 극적인 '독일 레퀴엠' 해석의 진수

2012년 9월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실황. 얀손스는 모든 성부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현에 특히 깊은 주의를 기울여 앙상블을 정갈하게 이끌어가며, 지나치게 비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차분하게 감정을 절제해 연주한다. 베이스 제럴드 핀리는 명확한 발성으로 깊이 있는 가창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게니아 퀴마이어는 다정하고 따뜻하면서도 깊은 비감을 담아 노래한다. 선명하고 집중력 있는 가창을 들려주는 네덜란드 방송 합창단 역시 이 녹음의 완성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실내악적 요소와 극적 요소가 모범적으로 결합된 연주.

Capriccio
www.capriccio.at

C5136
말러: 대지의 노래(챔버 오케스트라 버전)
Ivonne Fuchs(ms)/ Markus Schaffer(te)/ Linos Ensemble

쇤베르크는 1918년 빈에서 작은 규모의 사설음악모임을 만들어서 지인들과의 음악교류의 크게 힘을 썼다. 그는 이 음악회를 위해 기존의 대편성관현악곡들을 챔버 편성으로 편곡하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말러의 '대지의 노래'다. 하지만 쇤베르크는 1악장 중간에 편고글 포기했고, 이후 이는 미완성상태로 남아있다가 1983년 독일 작곡가 라이너 린에 의해서 완결되었다.

C5242
디티외: 교향곡 1번, 장 카수에 의한 2개의 소네트, 메타볼
Paul Armin Edelmann(br)/ Karl-Heinz Steffens/ Deutsche Staatsphilharmonie Rheinlan-Pfalz

독일의 유력지 Der Welt는 프랑스 작곡가 앙리 디티외(1916-2013)를 가리켜 '클래식 음악의 반 고흐'라고 칭했다. 그의 음악에 담긴 화려한 색채와 자유분방한 악상전개가 고흐의 화폭을 연상케 하였기 때문이리라. 신보에는 그의 대표관현악 작품인 'Metaboles'와 함께 비교적 전통적 양식미를 빌린 교향곡 1번과 바리톤과 관현악을 위한 장 카수의 시에 의한 두 개의 가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C7202 **[5장의 음반을 1장 가격에]**
헤르만 프라이 에디션
Herman Prey(br)/ Various Artists

지난 1998년 자신의 69번째 생일 직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는 피셔 디스카우와 더불어 독일을 대표하는 저음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5장의 음반으로 구성된 본 에디션에서는 위대한 오페라 가수와 뛰어난 리트 해석가라는 그의 본 모습과 더불어, 유쾌한 오페레타 및 뮤지컬 가수와 대중 가수로서의 활약상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Fanfare Cincinnati
www.cincinnatisymphony.org

FC-005
미국 민요: 오! 수재너, 나의 켄터키 옛집,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로잔 캐쉬, 카밋 블루그래스 올스타,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존 모리스 러셀(지휘)
스티븐 포스터를 비롯한 미국 민요의 명곡들

유럽, 아프리카, 인디언 등 여러 음악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미국 민요는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여유와 위트가 있어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음반은 스티븐 포스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여러 미국 민요가 수록되어있다. 〈오! 수재너〉, 〈나의 켄터키 옛집〉을 비롯하여 〈밝은 갈색 머리의 지니〉, 〈왜 사랑할 사람이 없지?〉, 〈고향의 옛 노래〉, 〈잠든 그대〉, 〈밴조를 울려라〉, 〈아름다운 몽상가〉, 〈힘든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아〉, 〈캠프타운 경주〉 등 포스터의 명곡과 함께 아름다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수 있다.

[Track List]
1. O! Susannah / 2. Jeanie With The Light Brown Hair / 3. My Old Kentucky Home / 4. Amazing Grace / 5. Rolling River: Sketches On Shenandoah / 6. Why, No One To Love? / 7. Old Folks At Home / 8. Kumbaya / 9. Slumber My Darling / 10. Aura Lee / 11. Foster's Folly / 12. Ring, Ring The Banjo / 13. Red River Valley / 14. The Battle Cry of Freedom / 15. Beautiful Dreamer / 16.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 17. Camptown Races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85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에그몬트 서곡

Klaus Tennstedt/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보다 콘서트 실황에서 더욱 더 뜨거운 열정을 발산했던 지휘자다. 그의 사후에 많은 콘서트 실황들이 음반으로 출시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더 한층 공고해졌다. 그는 건강악화로 1987년에 런던 필의 상임지휘자 자리를 사임했지만, 죽기 전까지 꾸준히 이 악단을 객원지휘하면서 마지막 열정을 불살랐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은 1992년 2월 21일, 에그몬트 서곡은 1991년 9월 26일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LPO-0084

브루크너: 교향곡 3번

Stanislaw Skrowaczewski/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체프스키는 아흔이 넘은 최근까지도 지휘계의 현역으로서 왕성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본 신보는 그의 나이 91세 되던 해인 2014년 3월 14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런던 필과 가졌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그가 일평생 심혈을 기울였던 작곡가인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을 연주한 것이다. 바그너에게 헌정되었던 이 교향곡은 이후 작곡가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대성당 사운드를 본격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LPO-0082

본 윌리엄스: 교향곡 4,8번

Vladimir Jurowski, Ryan Wigglesworth/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4번은 동료 작곡가인 윌리엄 월튼으로부터 베토벤 이후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극찬을 들었던 그의 대표 교향곡 중 하나이다. 그로부터 20여년 뒤에 완성된 교향곡 8번은 그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짧은 연주시간의 작품이지만, 그의 원숙하고도 창의적인 작곡 능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매력적인 작품이다. 라이언 위글워스가 지휘한 교향곡 4번은 2013년 5월 1일에,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지휘한 교향곡 8번은 2008년 9월 24일에 연주된 것이다.

Contrastes Records

www.contrastesrecords.com

CR201502

이름 없는 왈츠 – 영화 같은 꿈

프란치스코 베르니에(기타)

영화에 사용된 최고의 기타음악,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 시나리오

영화에 사용된 기타음악을 모은 앨범이다. 또한 브루웨르, 망고레, 빌라-로부스, 보그다노비치, 탕스망 등 최고의 작곡가들의 기타음악이기도 하다. 기타 거장 프란치스코 베르니에의 연주는 꿈과 같은 영화 속의 세계와 닮아있다. 그런데 이 음반은 특별한 기획이 들어있다. 영화 대신, 수록곡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 시나리오 두 편을 내지에 수록한 것이다. 루아 퓌엥트-앵베르의 "몸이 부유하는 곳에서"와 아디엘 킨테로 디아스의 "알론소"라는 두 편의 짧은 시나리오가 다비스 페레스 페코의 어두우면서 은은한 삽화들과 함께 신선한 감동을 준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 154

바흐: 소나타 1번, 파르티타 1번 / 버르토크: 소나타 / 사리아호: 프리즈

제니퍼 고(바이올린)

명석하고 냉철한 해석, 강렬한 열정과 감정, 풍부하고 충실한 바이올린 사운드!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가 두 번째 무반주 바흐 앨범을 내놓았다. 이 음반에는 바흐의 〈소나타 1번〉과 〈파르티타 1번〉을 녹음했으며, 이와 함께 메뉴힌이 위촉한 버르토크 만년의 걸작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첫 앨범에서도 소개했던 사리아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다. 명석하고 냉철한 해석과 함께 강렬한 열정과 감정을 담아내는 뛰어난 표현력으로 사랑을 받아온 제니퍼 고의 모습은 이 음반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명확한 리듬과 풍부하고 충실한 바이올린 사운드는 또 하나의 명반의 탄생이라고 할만하다.

CDR 90000 155

베라치니: 12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2

레이첼 바큰 파인(바이올린), 트리오 세테센토

낙천적이며 다양한 장식으로 화려한 베라치니 바이올린 예술의 정점

레이첼 바튼 파인은 미국인 최초로 라이프치히 바흐 바이올린 콩쿨에서 우승했으며, 퀸엘리자베스, 크라이슬러, 시게티, 몬트리올 등 유수한 콩쿨을 석권하여 정상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피렌체 출생의 베라치니는 이탈리아, 드레스덴, 런던 등에서 큰 명성을 얻은 바이올리니스트-작곡가로, 〈12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2〉는 이탈리아의 낙천적인 밝은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장식이 돋보이는 화려한 작품이다. 파인은 유려하면서 거침없는 보잉과 흠잡을 데 없는 기교로 명성에 걸맞은 호연을 들려주며, 산뜻한 기분으로 마음까지 밝게 한다. [3 FOR 2]

CDR 90000 158

젭스키: '단결된 민족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에 의한 변주곡, 네 개의 손

어슐러 오펜스(피아노), 제롬 로웬탈(〈네 개의 손〉의 제2 피아니스트)

미국 최고의 현대음악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변주곡

미국 최고의 현대음악 피아니스트인 오펜스가 젭스키의 대표작 〈'단결된 민족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했다. '단결된 민족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칠레의 작곡가 세르히오 오르테가가 1970년에 작곡한 곡으로, 당시 사회당의 구호를 바탕으로 작곡한 노동운동가였다. 젭스키는 이 곡에 자신의 작곡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36개의 변주곡을 작곡했으며, 즉흥곡을 추가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과 같이 주제로 감싸는 구조를 갖췄다. 오늘날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변주곡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CDR 90000 159

비발디: 비올라 다모레 협주곡 전곡

레이첼 바튼 파인(비올라 다모레), 홉킨슨 스미스(류트), 아르스 안티구아

오리지널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 협주곡 전곡

파인은 미국인 최초의 라이프치히 바흐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이며, 퀸엘리자베스, 크라이슬러, 시게티, 몬트리올 등 유수한 콩쿠르를 석권한 미국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그는 시대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반에서는 17세기에 유행했던 '사랑의 현악기' 비올라 다모레를 연주했다. 이 악기는 바이올린과 유사하지만 4도로 조율하여 비올족 계보에 속하며, 여섯 개의 현과 여섯 개의 공명현을 갖고 있어 풍부한 음색을 낸다. 비발디는 이 악기를 위해 여덟 곡의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이 음반에서 이 모두를 들을 수 있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51

바그너: 지크프리트 목가, 리스트: 장송곡, 브람스: 광시곡과 간주곡

데이빗 드보(피아노)

핵심적인 세 명의 낭만작곡가 리스트, 바그너, 브람스의 피아노곡을 한데 모은 음반

록포트 실내악 축제의 예술감독이자 MIT에서 가르치고 있는 데이빗 드보가 리스트, 바그너, 브람스의 피아노곡을 연주했다. 타이틀로 내세운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목가〉는 본래 관현악곡이지만, 요제프 루빈슈타인이 피아노로 편곡한 곡이 수록되었다. 루빈슈타인은 바그너의 제자이자 조수로, 그의 편곡은 피아노 한 대에 원곡의 감흥을 오롯이 재현해냈다. 리스트의 〈장송곡〉, 〈잿빛 구름〉, 〈리하르트 바그너의 무덤에서〉는 낭만음악가의 감수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브람스의 카프리치오와 간주곡은 가벼운 터치로 브람스의 깊은 정서를 그렸다.

Gramola

www.gramola.at

99079
트럼펫의 예술: 비버, 살리에리, 모차르트, 베버 등
슈반탈러 트럼펫 콘소트

17~18세기의 상쾌하고 숭고한 트럼펫의 앙상블 음악
바로크 시대에 금관악기는 귀족의 상징이었다. 특히 트럼펫은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귀족의 위엄을 높였다. 이 음반은 이러한 17, 18세기의 트럼펫 음악을 수록하여, 숭고한 귀족적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게 한다. 하인리히 비버를 비롯하여 슈타르처, 픽슬밀너 등 17~18세기 바로크의 시원한 팡파르를 들을 수 있으며, 살리에리, 모차르트, 쉬더마이어, 베버 등 바로크의 금관음악을 이어받은 18세기 후반 고전 시대의 트럼펫 음악도 흥미롭다. 특히 슈타르처의 작품에서 들을 수 있는 클라리넷의 전신 '샬뤼모'의 고풍스러운 음색은 놓칠 수 없다.

99067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 21번
파울 바두라-스코다(피아노), 칸 심포니 오케스트라, 볼프강 되르너(지휘)

전설적인 모차르티안이 영화의 도시 칸에서 연주한 '엘비라 마디간' 협주곡
최고의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바두라-스코다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했다. 영화의 도시 칸(깐느)에서 칸 심포니와 녹음한 이 음반은 흥미롭게도 영화 '엘비라 마디간'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수록하고 있으며, '죄놈'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9번도 함께 녹음했다. 바두라-스코다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현대 오케스트라와의 녹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르테피아노 대신 현대 피아노로 연주한다. 놀랍게도 그의 손끝에서 발현되는 모차르트 사운드는 변함이 없다. 글래스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는 아름다운 보너스이다.

99075
멘델스존, 닐스 가데: 바이올린 협주곡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론 살로몬(지휘)

고상한 섬세함과 사명감 어린 열정으로 높은 예술성을 드러내다
이른베르거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로, 모범적이며 완벽한 연주로 고전과 낭만의 주요 레퍼토리를 섭렵하며 차세대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예루살렘 심포니와 함께 연주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는 기존의 감상자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전통적인 해석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자신의 거장성을 입증한다. 이와 함께 덴마크 작곡가 닐스 가데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가 수록되어있다. 이른베르거는 고상한 섬세함과 사명감 어린 열정으로 이 곡이 갖고 있는 높은 예술성을 모두 드러낸다.

99080
유대인의 노래 '입술로 표현하다'
슈무엘 바르질라이(테너), S.F.Y.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모르데차이 소볼(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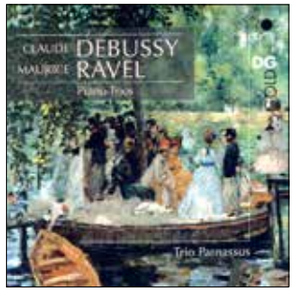
빈 유대인 공동체 수석 칸토르로부터 듣는 진짜 유대음악
유대음악은 인류의 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블로흐와 같은 유대인 작곡가들은 유대적인 음악을 만드는 데에 재능을 쏟기도 하고, 브루흐, 쇼스타코비치와 같은 비유대인 작곡가들도 그들의 음악과 삶에서 영감을 얻어 유대적인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다. 이 음반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원색의 대중적인 유대음악을 수록했다. 예루살렘 태생의 바르질라이는 텔아비브에서 노래를 공부한 정통파 유대음악 가수로, 현재 빈 유대인 공동체의 수석 칸토르이다. 그의 노래로부터 애수와 희락이 교차하는 '진짜' 유대음악을 듣게 된다.

MD&G

www.mdg.de

307 1898-2
하이든: 현악사중주 8집
Leipzig String Quartet

독일을 대표하는 중견 실내악 앙상블인 라이프치히 쿼텟이 MD&G를 통해 진행 중인 하이든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8번째 음반. 하이든이 1787년에 완성한 6편의 현악사중주는 아마추어 첼리스트이기도 했던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게 헌정된 관계로 흔히 '프로이센 사중주'로 불린다. 본 신보에는 그 중 2번 C장조와 3번 Fb장조, 그리고 '개구리'라는 부제로 알려진 6번 D장조의 3작품이 수록되었다.



303 0272-2
드뷔시/ 라벨: 피아노 트리오
Trio Parnassus

실내악의 명가 레이블인 MD&G를 대표하는 실내악 앙상블의 하나인 트리오 파르나수스가 1987년에 출시했었던 초기 대표 명반이 오랜만에 재발매되었다. 드뷔시와 라벨은 피아노 트리오를 하나씩만 완성하였는데, 이들 두 작품 모두는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실내악 걸작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연주이지만, 이 음반에 담긴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감각적인 연주는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한다.

608 0423-2
로시니/ 하이든: 첼로 이중주
David Geringas(vc)/ Emil Klein(vc)

한 동안 MD&G의 카탈로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매력만점의 음반이 재발매되었다. 1970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이자 몇 번의 내한 연주를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인 다비드 게링가스가 에밀 클라인과 호흡을 맞춘 이 첼로 이중주 음반에는 로시니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작품과 하이든이 두 대의 바리톤(첼로와 유사한 저음 현악기)을 위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316 1907-2
잉글랜드 오르간 음악의 축제 2집
Ben van Oosten(org)

벤 반 오스텐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잉글랜드 오르간 작품 시리즈는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이 나라의 오르간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재고하게끔 만든다. 1집에 이어서 발매된 본 신보에는 '위풍당당행진곡 1번'과 '제국 행진곡', '아침의 노래', '밤의 노래'와 같은 엘가의 대표 인기작들의 오르간 편곡과 더불어, 아일랜드, 브리지, 하웰즈, 패리와 같은 영국 대표 작곡가들의 오르간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930 1908-6 [Hybrid SACD]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Piano Duo Trenkner-Speidel/ Stefan Blunier/ Beethoven Orchester Bonn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적 창조력이 최고로 분출되었던 '봄의 제전'은 작품의 초연과 관련된 엄청난 스캔들로 더 한층 유명세를 더한 작품이다. 본 신보에는 일반적인 관현악 버전과 더불어, 관현악 버전의 1년 앞서서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 이중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여러 관현악 걸작들의 피아노 이중주 편곡 음반들로 주목 받았던 트렝크너-슈피델 듀오는 절묘한 호흡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관현악 버전에 못지 않은 화려한 색채를 훌륭히 드러내었다.

903 1894-6 [SACD]
핀치: 실내악작품집
Cologne Chamber Soloists

제럴드 핀치(1901-56)는 20세기 영국 가곡과 실내악 분야에 큰 공헌을 했던 작곡가다. 본 신보에는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5개의 바가텔과 현악삼중주를 위한 '전주곡과 푸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엘레지' 등의 그의 대표 실내악들과 더불어, 본 윌리엄스의 테마를 토대로 핀치 자신과 퍼거슨, 로손를 비롯한 다른 일곱 작곡가들의 공동 작곡 변주곡인 '디아벨리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603 1912–2
라이네케/헤르초겐베르크/보웬: 트럼펫과 트롬본,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Andre Schoch(trum)/Michael Massong(trom)/Friedrich Horicke(pf)
희귀한 실내악 레퍼토리를 더 희귀한 편성으로 연주한 독특한 음반
동시애인이라 할 수 있는 카를 라이네케와 하인리히 폰 헤르초겐베르크, 그보다 훨씬 후대의 영국 작곡가인 요크 보웬의 실내악곡을 한데 묶은 음반. 원곡은 모두 오보에와 호른 및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이지만 여기서는 트럼펫과 트롬본 및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된다. 라이네케의 삼중주는 출판업자가 '팔리지 않을 테니 대체 버전도 작성하라'고 요구한 일화가 있으며, 브람스의 친구였던 헤르초겐베르크의 삼중주는 고전적인 구성을 지녔지만 한층 소박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지녔다. 보웬의 '발라드'는 이보다 한층 세련된 서법과 현대적인 감수성을 보여준다.

618 1850–2
존 필드: 녹턴 2집
Stefan Irmer(pf)
슈테판 이르머가 깊이 있게 탐구한 '원조 녹턴'의 세계
아일랜드 출신 작곡가인 존 필드는 오늘날 '녹턴의 아버지'이자 쇼팽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억된다. 쇼팽은 이런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지만, 제자에게 필드의 녹턴을 연습해보라고 추천한 적은 있었다. 로시니, 포레, 탈베르크 등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곡을 정력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슈테판 이르머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필드 녹턴 녹음 프로젝트의 2탄에 해당하는 이 음반에서도 1집 때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명징하고 유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1901년 산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를 사용했다.

903 1909–6 [Hybrid SACD]
사라사테: 오페라 환상곡 2집
Ralph Zedler(pf)/Volker Reinhold(vn)
사라사테가 살롱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프랑스 오페라의 세계
사라사테의 오페라 환상곡 1집 녹음으로 호평을 받았던 라인홀트와 체틀러 콤비가 여세를 몰아 2집을 내놓았다. 특정 오페라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나 접속곡을 작곡하는 것은 리스트나 파가니니 등 다른 작곡가들도 많이 한 일이지만 사라사테는 특히 그 수가 많다. 여기에는 구노의 '파우스트', 토마의 '미뇽' 등 인기곡뿐만 아니라 부아엘디외의 '흰 옷의 부인'이나 에롤의 '잠파' 등 프랑스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망라되어 있다. 라인홀트와 체틀러 모두 명확하고 단정하며 우아한 연주로 악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살려 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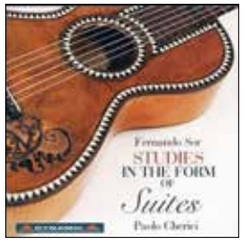
Wiener Symphoniker

www.wienersymphoniker.at

WS 009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The Great 교향곡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리프 조르당(지휘)
이전까지 들었던 슈베르트와는 다른, 완전히 색다른 슈베르트
이 음반은 슈베르트의 두 개의 위대한 교향곡 〈미완성〉과 〈The Great〉를 수록했다. 이 음반에서는 잘 알려진 각 곡의 번호 8번과 9번과는 다른 하나씩 적은 번호 7번과 8번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케치로 남아있는 과거의 6번을 인정하지 않는 요즘의 추세에 따른 것이다. 필리프 조르당이 지휘하는 빈 심포니는 이 두 곡을 완전히 색다르게 연주한다.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의 음색 대비를 살려 슈베르트의 음색 마술사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공간의 잔향을 이끌어내는 연주는 브루크너를 연상시킬 정도로 산뜻하면서 거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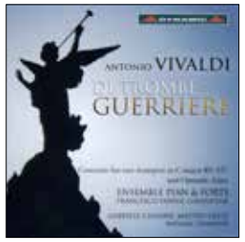
Dynamic

www.dynamic.it



CDS7722
소르: 모음곡으로 재구성한 연습곡
파올로 케리치(기타, 1817년 제작)
30여 년간 작곡된 연습곡들을 모음곡으로 재구성한 소르의 기타 예술
페르난도 소르는 19세기 초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곡가였다. 그는 교향곡과 발레, 오페라 등도 작곡했지만, 그의 작품목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곡이다. 특히 '12개의 연습곡 1권, Op.6', '12개의 연습곡 2권, Op.29', '초보자를 위한 24개의 진보된 레슨, Op.31', '24개의 연습곡, Op.35', '24개의 진보된 연습곡, Op.44a', '25개의 진보된 연습곡, Op.60' 등 연습곡이 눈에 띄는데, 이 음반은 30여 년간 작곡된 이 연습곡들을 조성별로 재구성하여 보다 극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1817년 로망스 기타의 명징한 소리 또한 매우 아름답고 평온하다.

CDS7723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8, 20번 (후멜의 실내악 편곡)
레오나르도 미우치(포르테피아노), 슈카블레츠(플루트), 게바우어(바이올린), 고살베스(첼로)
고전의 마지막 거장 후멜이 실내악으로 편곡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당시에도 인기 있는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과거에는 관현악단이 필요한 이 곡들을 쉽게 들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살롱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실내악으로 편곡하곤 했다. 19세기 초에 활약했던 요한 네포무크 후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일곱 곡을 플루트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해 편곡했으며, 이 음반은 그 중 18번과 20번의 편곡을 수록했다. 미우치는 로버트 레빈과 반 오르트로부터 포르테피아노를 배웠으며, 후멜이 살았던 시대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를 복원한 악기로 연주하여 고전의 운치를 더한다.



CDS7710
비발디: 트럼펫이 있는 아리아, 두 대의 트럼펫 협주곡 등
카시나리(소프라노), 푸마갈리(메조), 발코니(알토), 보르조니(베이스), 피안 & 포르테 앙상블
비발디의 전쟁 오페라 중 트럼펫이 함께 연주되는 아리아 모음
트럼펫은 전쟁에 필수적인 악기였는데, 전쟁을 소재로 하는 비발디의 오페라 중 트럼펫이 함께 연주되는 아리아인 〈몬테추마〉의 '분노로 무장하여', 〈일 테우초네〉의 '전쟁의 트럼펫', 〈티토 만리오〉의 '재앙이 닥친 후'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싸워라', 〈칸토네 인 우티카〉의 '전쟁터에 있다면', 〈스칸데르벡〉의 '야자수와 월계수로'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두 대의 트럼펫 협주곡〉에서 화려한 바로크 트럼펫의 진수도 들려준다. 카소네와 프리게의 거침없는 내추럴 트럼펫 사운드는 18세기 귀족의 당당함을 드러내며, 성악가들의 노래 또한 모범적이다.

CDS7672 [세계 최초 녹음]
파가니니: 기도 소나타(신발견 버전), 대협주곡(오리지널버전) 등
루카 판포니(바이올린), 루카 시몬치니(첼로), 루카 발레리니(피아노)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명작들의 초판본 희귀 연주
파가니니, 로마니니, 비오티 세 개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파르마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루카 판포니는 이탈리아 최고의 연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작품을 수록한 이 음반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파가니니가 사용했던 1743년 과르네리 델 제수로 연주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명한 〈기도 소나타〉의 새로 발견된 악보로 연주한 세계최초 녹음이라는 점이다. 이 곡은 기존의 작품과는 서주가 다르며, 여기서는 기타가 아닌 피아노 반주로 연주한다. 〈대협주곡〉도 희귀한 오리지널 버전으로 연주했다.

Seattle Symphony

www.seattlesymphony.org

SSM1006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바레즈: 아메리크
시애틀 심포니, 뤼도비 모를로(지휘)
드보르작과 바레즈가 바라본 미국, 그 신세계의 모습들
오늘날 드보르작의 작품 중에 약 3년간의 미국 체류 중에 작곡된 곡들이 집중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그 핵심은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이다. 드보르작은 미국의 흑인영가와 인디언 음악에서 5음 음계 등 체코 음악과 유사한 점들을 발견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을 서양고전음악에 융합하여 글로벌 음악을 창작해냈다. 시애틀 심포니는 멜로디 라인에 담긴 이러한 종족음악적 특징을 부각시키며, 풍부한 고전적 음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신세계'를 만들었다. 다양한 타악기 사용으로 유명한 바레즈의 〈아메리크〉 역시 '신세계' 다운 작품이다.

paladino music Paladino

www.paladino.at

pmr0005 [2 CD FOR 1,5]

모차르트: 클라리넷 삼중주, 클라리넷 오중주/브람스: 클라리넷 삼중주, 클라리넷 소나타 2번

디미트리 아쉬케나지(클라리넷), 크리스토퍼 힌터후버(피아노) 등

감성과 낭만의 클라리네티스트 디미트리 아쉬케나지의 뮐피어텔 음악제 실황

감성과 낭만의 클라리네티스트 디미트리 아쉬케나지가 2007년과 2008년 뮐피어텔 클래식 음악제에서 연주한 곡들을 두 장의 CD에 담았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삼중주〉와 〈클라리넷 소나타 2번〉은 그의 풍부한 감수성이 진가를 발휘하며, 클라리넷이 함께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가곡 〈바위 위의 목동〉은 소프라노와 함께 완벽한 이중창을 이룬다. 첸린스키의 〈클라리넷 삼중주〉는 브람스의 정서를 이어받고 있지만, 그만의 두터운 화음과 격정의 순간을 훌륭히 포착한다. 모차르트의 희귀한 삼중주와 오중주에서 아쉬케나지는 그만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pmr 0038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2, 13번, 교회 소나타 K.336

마르쿠스 쉬르머(피아노), A Far Cry(스트링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대표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진실하고 신뢰도 높은 연주

그라츠 음대의 피아노 교수인 마르쿠스 쉬르머는 칼 뵘 해석상과 독일 음반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다. "음악이 마음, 머리, 손가락 끝으로부터 직접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는 그의 음악에 진실함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쉬르머는 모차르트의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장면들이 연상될 정도로 실제로 모차르트가 즐겼을 가벼운 터치와 유쾌한 연주를 들려주며, 또한 균형 잡힌 진행으로 강한 신뢰감을 준다. 함께 수록된 교회 소나타의 편곡은 숨겨졌던 보석의 재발견이다.

pmr 0046

슈베르트: 환상곡, 피아노 삼중주

보리스 쿠하르스키(바이올린), 페터 뵈프케(첼로), 엘리자베스 홉킨스(피아노)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탄탄한 연주

에후딘 메뉴힌의 제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보리스 쿠하르스키와, '프라하의 봄' 첼로 콩쿨 우승자이자 로스트로포비치의 제자이며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페터 뵈프케, 그리고 "빛나는 피아니스트, 거장다운 해석"이라는 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홉킨스가 모여 슈베르트의 실내악 작품을 연주했다. 〈환상곡〉은 한편의 긴 무언가와 같이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이며, 〈피아노 삼중주〉는 극적 표현이 강조되어 보다 큰 편성의 작품들이 필적한다. 연주자들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는 탄탄한 연주를 들려준다.

pmr 0051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전곡

프락세디스 훅-뤼티(하프), 프락세디스 쥬느비에브 훅(피아노)

하프와 피아노의 음색 대비로 헝가리적인 특징을 극대화한 재기발랄한 연주

'프락세디스'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하프와 피아노 연주자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21곡을 연주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그가 작곡한 가장 가벼운 음악 중 하나로, 대중적으로도 유명하며 5번은 앵콜 레퍼토리로 흔히 연주되고 있다. 하지만 전곡은 모두 21곡에 달하는데, 이 음반은 이 전곡을 수록하고 있다. 본래 피아노 연탄곡으로서, 하프와 피아노의 음색적인 대비를 통해 각 파트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다. 특히 하프가 집시들이 많이 사용하는 침발롬 소리와 유사하여 더욱 헝가리적인 풍비를 살리고 있다.

pmr 0052

코플란드: 피아노 소나타, 네 개의 피아노 블루스, 엘 살롱 멕시코, 로데오

유제니 루소(피아노)

현대와 대중을 넘나드는 코플란드의 다양한 스타일의 피아노곡들

전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연주를 소화하고 있는 뉴욕 출신의 피아니스트 유제니 루소가 아론 코플란드의 피아노 작품들을 녹음했다. 코플란드는 아방가르드와 대중적인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20세기 미국 음악가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 이 음반은 이러한 코플란드의 폭넓은 음악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피아노 소나타〉는 현대적인 터치가 돋보이면서도 미국 대중음악의 리듬이 지배하며, 멕시코의 전통음악을 참조하여 쓴 〈엘 살롱 멕시코〉와 재즈의 영향이 강한 〈로데오〉는 코플란드의 대중에의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이다.

pmr 0062

데 파야: 피아노 작품 전곡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스(피아노)

스페인 최고의 국민악파 작곡가 데 파야의 희귀한 피아노곡 전곡 녹음

"적절한 템포와 프레이징, 잘 잡힌 균형으로 음악이 가진 신선함과 젊음을 표현했다." "부럽도록 좋은 취향을 가진 훌륭한 피아니스트이다. … 그의 피아니즘은 전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찬사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피아니스트 로드리게스이다. 그는 스페인의 중요한 국민악파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의 피아노곡 전곡을 녹음했다. 그의 피아노곡은 소품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그의 천재적인 극적 감각으로 음악적 깊이와 내용은 마스터피스 수준으로 깊다. 특히 〈알레그로 협주곡〉과 〈판타시아 바에티카〉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pmr0049

풀렝크: 바이올린 소나타, 플루트 소나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콜랴 레싱(바이올린), 헨리크 비제(플루트), 에바-마리아 마이, 알렉산더 비난트(피아노)

독일 정상의 드림팀 연주자들이 펼치는 최고의 풀렝크 연주

레싱은 슈투트가르트 음대 교수로서 1999년 '요한 벤첼 슈타미츠' 특별상과 2008년 독일 평론가상, 2015년 슈투트가르트 오토-히르쉬 상을 받은 명성 높은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비제는 1995년 독일 콩쿠르를 시작으로 1997년 고베, 1998년 마르크노이키르헨과 덴마크 오덴세, 2000년 뮌헨 등 여러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현재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이다. 마이는 독일 대학 콩쿠르 우승자이자 뷔르츠부르크 음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이다. 이들 독일의 정상급 연주자들은 최고의 풀렝크의 소나타 연주를 이룩했다.

pmr0064

슈타크: 클라리넷 협주곡 1번, 3번, 로망스 1번, 왈츠-카프리스

디미트리 아쉬케나지(클라리넷),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빗 커티스(지휘)

낭만시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교육자 슈타크의 잊혀졌던 아름다운 음악

따뜻한 음색을 가진 클라리네티스트 디미트리 아쉬케나지가 독일의 낭만작곡가 로버트 슈타크(1847-1922)를 소개하고 있다. 슈타크는 오늘날 거의 잊혔지만, 1892년에 첫 출판된 그의 클라리넷 교습서는 현재도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으로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다. 그의 음악은 클라리넷의 음색이 갖는 서정적인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으며, 풍부한 낭만적인 감성을 표현한다. 색체적인 관현악은 슈타크가 뛰어난 작곡실력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며, 아쉬케나지의 뛰어난 해석 또한 작품의 진가를 드러낸다.

Arco Diva

www.arcodiva.cz

UP 0166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1번, 베르디: 현악사중주, 수크: 명상곡

카프랄로바 현악사중주단

감춰진 낭만의 보석을 한데 모은 보물섬과 같은 음반

프라하의 관록 있는 카프랄로바 현악사중주단이 숨겨진 보석과 같은 작품들을 한데 모았다. 멘델스존은 교향곡과 협주곡으로 유명하지만, 다수의 실내악 작품도 이에 못지않은 상당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으며 전기낭만의 정서를 깊이 담고 있다. 20세 작품인 〈현악사중주 1번〉은 영국에서 성공적인 연주여행 중에 완성된 수작으로, 3악장은 그의 무언가를 연상시킨다. 베르디의 〈현악사중주〉는 60세 때의 작품으로, 최고의 거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일탈의 모습이다. 오페라적인 극적 장치에 그의 뛰어난 기악적인 표현력이 더해진 낭만시대의 걸작이다.

Grand Piano

www.grandpiano.org

GP689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에뷰: 그리그의 미완성 스케치에 의한 협주곡

카를 페테르손(피아노),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케리 스트래튼(지휘)

미완성 피아노 협주곡 스케치로부터 탄생된 그리그의 또 하나의 협주곡

그리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은 1868년에 완성된 이후 최소한 일곱 번이나 수정되었다. 마지막 수정은 1907년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수정에는 그리그 자신뿐만 아니라 영국 작곡가 퍼시 그레인저도 참여했다. 이 음반에는 이 최종판이 수록되어있으며, 또한 1882~83년에 스케치로만 남겨진 〈피아노 협주곡 B단조〉도 들을 수 있다. 이 미완성 협주곡은 훗날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헬게 에뷰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지극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협주곡을 완성했다.

GP646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17~20번

Kemp English(pf)

모차르트와 견주었던 코젤루흐가 38세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체코 작곡가 레오폴트 코젤루흐(1747–1818)는 당대 비엔나 최고의 건반 연주자였다. 그의 건반 작품들은 큰 인기가 있었으며, 베토벤과 슈베르트에게 음악형식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코젤루흐는 50곡의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소나타 5집에는 38세였던 1785년에 작곡한 네 곡을 수록했다. 이 곡들은 밝고 귀족적인 고전의 풍미를 갖추면서 극적 효과를 부각시켜, 하이든을 발전시키고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음악세계를 들려준다. 잉글리시는 힘 있는 타건과 폭넓은 다이나믹으로 코젤루흐의 뛰어난 작품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GP648

오베르: 흔적, 바이올린 소나타, 영상의 잎사귀, 아바네라

Jean–Pierre Armengaud(pf)
Alessandro Fagiuoli (vn)
Olivier Chauzu(pf)

포레의 제자이자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베르의 환상적인 음악세계

루이 오베르는 포레의 제자로서, 포레, 라벨, 슈미트, 쾨슐랭 등과 함께 '독립음악협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드뷔시 이후 프랑스를 지배했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의 바다와 밤 등의 정취를 표현한 〈흔적〉은 환상적인 화음과 살롱 풍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결합되어있다. 〈바이올린 소나타〉는 대규모의 고전적인 작품이며, '다섯 개의 어린이 작품' 〈영상의 잎사귀〉는 교육용 작품이지만 감성적 표현은 다른 작품 못지않게 깊다. 〈아바네라〉는 오베르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으로, 작곡가가 직접 네 손을 위해 편곡한 버전을 수록했다.

GP690

글래스: 피아노 연습곡 전곡

Nicolas Horvath(pf)

글래스 내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진솔한 연주

미니멀리즘 음악의 거장 필립 글래스는 교향곡과 협주곡, 오페라 등 큰 규모의 작품들을 많이 썼지만, 최근 피아노 연습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에릭 사티를 연상케 하는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반주는 글래스가 음악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같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작곡되어 그의 음악의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음악적 일기이기도 하다. 스크리아빈 콩쿠르와 루이지 노노 콩쿠르 우승자인 니콜라 호르밧은 이러한 글래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진솔한 연주를 들려준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 0180 [First Recording]

텔레만: '조화로운 예배' 6집 일곱 개의 칸타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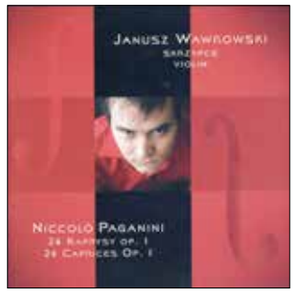
얀 반 엘사커르(테너), 에두아르 웨슬리(오보에), 베르겐 바로크

경건한 주일예배에 어울리는 맑은 목소리와 청아한 오보에와의 이중주

노르웨이 정상의 바로크 음악 연주단체인 베르겐 바로크가 텔레만의 일곱 개의 칸타타들을 녹음했다. 이 곡들은 칸타타집 '조화로운 예배' 6권에 수록된 곡으로, 재림절의 두 번째 주일과 성탄주일,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예수공현축일의 세 번째 주일, 칠순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종려 주일 등에 연주하는 곡들이다. 이들은 높은 목소리를 위해 작곡되었는데, 테너 얀 반 엘사커르의 맑은 음성은 경건한 주일예배에 잘 어울리며, 레치타티보에서는 극적 표현을 적절히 배합했다. 앙상블은 오보에가 리드하며, 테너와 함께 청아한 이중주를 연출한다.

Accord

www.cdaccord.com.pl



ACD142–2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Op. 1

야누스 바브로프스키(바이올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이다 헨델)

1982년생 폴란드 바이올리니스트 바브로프스키는 6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쇼팽 음악원과 그라츠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자국의 여러 콩쿠르를 석권하고 루이 슈포어 콩쿠르와 오이스트라흐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몇 안 되는 유럽의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다 헨델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호평했다. 폴란드의 거장 쿨카는 그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연주에 대해 "존경스러우며 감탄스럽다. 이 연주는 폴란드 바이올린 예술의 미래를 밝혀준다"라고 평했다.

ACD218–2

바인베르크: 더블베이스 독주 소나타, 브로하츠카: 더블베이스 협주곡, 더블베이스 소나타 등

카롤 코발(더블베이스), 카타시나 브로하츠카(피아노)

3대 소련 작곡가 바인베르크와 폴란드의 신예 브로하츠카의 더블베이스 작품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는 폴란드 출신의 소련 작곡가로, 오늘날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와 함께 3대 소비에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나치에 의해 가족 대부분을 잃었으며,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등 힘겨운 삶을 살았다. 〈더블베이스 독주 소나타〉에는 이러한 그의 삶이 담겨있다. 하나의 더블베이스를 다채로운 기교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강렬하게 전달한다. 폴란드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 카타시나 브로호츠카의 작품은 짙은 감수성으로 호평을 얻고 있으며, 코발의 섬세하고 완성된 테크닉으로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Two Pianists

www.twopianists.com

TP 1039282

콘골트: 피아노 삼중주, 모음곡 Op. 23

다니엘 라울랜드, 프리야 미첼(바이올린), 줄리안 아프(첼로), 루이스 마갈량스(피아노)

콘골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돋보이는 두 곡의 실내악 작품

비운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콘골트는 전설적인 영화음악 작곡가로 기억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독일 전통에 입각한 클래식 작곡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며, 낭만음악의 서정과 감성에 집중했다. 〈피아노 삼중주〉는 10대 초에 작곡된 초기작으로 브람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화음과 선율은 이미 그만의 개성이 넘친다.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왼손을 위한 피아노라는 특이한 편성의 〈모음곡〉은 30대 중반의 수작으로, 시작부터 강렬한 피아노의 파도에 압도되며, 두터운 화음에 한 천재 예술가의 고뇌가 가득 담겨있다.

TP 1039220

바버: 추억, 볼콤: 추억, 코플란드: 엘 살론 멕시코 등

루이스 마갈량이스, 니나 슈만 (피아노)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미국적인 피아노 듀오 작품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음반사 '투피아니스츠'의 설립자인 루이스 마갈량이스와 니나 슈만 부부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미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로 채운 듀오 앨범을 내놓았다. 바버의 〈추억〉은 어린 시절 뉴욕의 한 호텔을 추억하며 쓴 발레곡이며, 볼콤의 〈추억〉은 브라질의 작곡가 나사레트와 미국출신의 브라질 작곡가 곳샬크, 베네수엘라 작곡가 팔라시오스에 대한 인상을 남미풍의 춤곡으로 그렸다. 〈엘 살롱 멕시코〉는 코플란드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수집한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걸작이다.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www.rpo.co.uk

RPO SP 034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닉 레인(지휘)

28편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음악으로 만나다

영국을 대표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주요 테마를 연주했다! 이 앨범에서 이미 음악으로 유명한 '러브 스토리', '시네마 천국', '쉰들러 리스트', '타이타닉' 뿐만 아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배트맨', '보디가드', '미션 임파서블', '반지의 제왕'과 함께 아름다운 상상의 풍경을 보여준 '아바타', 옛 로마의 영광과 그림자를 그린 '글래디에이터', 인생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포레스트 검프', 음모론을 파헤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다빈치 코드', 요리하는 쥐라는 특이한 컨셉의 '라따뚜이' 등 28편의 명화를 음악으로 만난다.

RPO SP 039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 민둥산의 하룻밤, 호반시치나, 소로친스키 축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제고시 노바크(지휘)

유일하게 러시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고르차코프의 관현악 편곡판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피아노곡이지만, 오늘날에는 라벨의 관현악 편곡이 자주 연주되고 있다. 하지만 라벨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편곡들이 존재하는데, 노바크는 세르게이 고르차코프의 1954년 편곡을 선택했다. 고르차코프는 현대적인 음색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유일한 러시아적 편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라벨이 원곡에서 삭제한 부분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완성 오페라인 〈호반시치나〉와 〈소로친스키 축제〉의 각각 림스키-코르사코프와 리아도프의 편곡판은 그의 음악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100049

제미니아니: 여섯 개의 첼로 소나타, 헨델: 하프시코드 모음곡 5번

로레타 오설리번(첼로), 앤드루 아펠(하프시코드)

영국 최고의 콤비였던 제미니아니와 헨델의 향연

제미니아니는 A. 스카를라티와 코렐리의 제자로, 나폴리에서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으며, 영국으로 건너가 헨델과 함께 활동하며 큰 명성을 얻었다. 특히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현악 작품을 많이 남겼다. 첼로 소나타는 그의 걸작 중 하나로,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진 여섯 곡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미국의 정상급 바로크 첼리스트인 오설리번과 스탠포드 대학 고음악 박사인 폴리의 연주는 고상하고 고풍스러운 아우라로 가득하며, 1754년에 제작된 하프시코드로 연주하는 헨델의 영롱한 사운드는 매우 환상적이다.

ORC100050

J.S. 바흐: 파르티타 1, 2, 6번

에드나 스턴(피아노)

대위적인 복잡성을 손쉽게 풀어가는 흠잡을 데 없는 명연

에드나 스턴은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 레온 플라이셔의 제자로, 런던 왕립음악원 교수이자 프랑스 콩피에뉴 황립극장의 상주예술가이다. 그녀의 여러 음반은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으며, 디아파종 메거진은 "그녀의 연주는 세 명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특징을 갖고 있다. ...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당당함, 레온 플라이셔의 음악성,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흠잡을 데 없는 완성이 그녀를 구성한다."라고 극찬했다. 바흐의 파르티타 1, 2, 6번을 연주한 이 음반 역시 이러한 명성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명연으로, 대위적인 복잡성을 손쉽게 풀어간다.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ATH23203 [2CD FOR 1]

텔레만: 24개의 무반주 환상곡

페테르 셰파드 스케르베드(바이올린)

이탈리아 소나타 형식과 독일음악의 특색을 두루 갖춘 텔레만의 역작

텔레만의 무반주 플루트 환상곡과 무반주 바이올린 환상곡은 각각 1732년과 1735년에 함부르크에서 출판되었다. 텔레만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악기의 무반주 독주곡집을 내놓았는데, 오늘날 플루트와 바이올린 작품집이 자주 연주되고 있다. 네 악장을 갖춘 교회소나타와 세 악장을 갖춘 실내소나타가 고루 배치되어있으며, 약간의 변칙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탈리아 소나타 형식에 폴리포니 기반의 당시 독일음악의 특색도 한데 어우르고 있다. 스케르베드는 두 환상곡을 1570년 아마티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여 고풍스러운 멋을 한껏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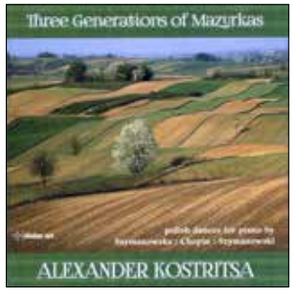
msvcd 2008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피아노 사중주 편곡 버전)

아론 쇼어(피아노), 페테르 셰파드 스케르베드(바이올린), 도브 셰인들린(비올라), 닐 헤이드(첼로)

초연된 지 3년 만에 출판되어 신문에 기사가 났던 실내악 버전

녹음이 없었던 과거에는 관현악을 쉽게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내악으로 편곡되는 일이 흔히 있었다.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역시 1807년 빈에서 피아노 사중주로 편곡되어 출판되었다. 원곡이 1804년에 초연되고 겨우 3년 만에 실내악 버전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이 곡이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해 4월에 비너 차이퉁에서 편곡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을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본 편곡은 악기의 밸런스가 잘 조절되어있으며, 연주자들 또한 열정적인 연주로 원곡 못지않은 극적인 면모를 살리고 있다.



dda 25123

마주르카의 세 세대: 시마노프스카, 쇼팽, 시마노프스키

알렉산더 코스트리차(피아노)

세 세대에 걸친 폴란드 작곡가들에 의한 마주르카의 역사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전통 춤곡으로, 왈츠와 같이 3박자로 되어있으며 활기가 있는 빠른 템포로 진행된다. 특히 첫 박이 아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박에 강세를 두는 특징이 있다. 마주르카가 클래식 음악의 한 장르로 들어오게 된 것은 쇼팽의 공이 컸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폴란드 작곡가들은 마주르카를 작곡했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마리아 시마노프스카의 마주르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쇼팽의 마주르카는 여기에 보다 세련된 화성으로 유럽을 감동시켰으며, 근대의 카롤 시마노프스키는 현대적인 화음으로 진지한 마주르카 예술을 선보였다.

Orlando

www.orlando-records.com

OR0015

드뷔시: 영상 1, 2권, 라모: 모음곡 A단조/장조

자비네 바이어(피아노)

꿈 속을 걷는 듯한 아늑함과 여유, 이것이 진정한 프랑스의 화음!

룩셈부르크 출신의 자비네 바이어는 파울 바두라-스코다, 미셸 베로프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 콩쿠르에서 우승한 실력파 연주자이다. 이 음반은 진정한 프랑스 작곡가인 드뷔시와 라모의 작품을 수록했다. 바이어는 드뷔시의 두 권의 〈영상〉에서 섬세하고 주의 깊은 터치로, 때로는 잔잔한 물결과 같이,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이 연주한다. 옛 선법을 활용한 드뷔시 특유의 몽환적인 화음이 더없이 풍부하다. 라모의 〈모음곡〉에서는 현의 공명을 최대한 살려, 다른 연주에서 듣지 못했던 라모의 아름다운 화음에 심취하게 될 것이다.

Tactus

www.tactus.it

TC 601803

루비노: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카펠라 무지칼레 디 산타 마리아, 알토니오 일 베르소 고음악 스튜디오, 빈센초 디 베타(지휘)

17세기 팔레르모의 마에스트로 루비노의 폴리포니에 빛나는 레퀴엠

보나벤투라 루비노는 17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음악가로, 1643년부터 1665년까지 팔레르모 성당의 '마에스트로 디 카펠라'로 봉직했던 당대 거장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몇 개의 성가곡이 전해지고 있는데, 큰 규모를 가진 작품들이 많다. 1653년에 작곡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Op. 4〉는 그 대표작으로, 기악과 합창, 앙상블 등 콘체르토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다섯 개의 콘체르타타를 위한' 곡이라고 표기되어있다. 17세기 중엽의 풍부한 다성음악과 함께 금관의 웅장한 팡파르는 종교적인 엄숙함과 숭고함과 화려한 귀족의 자태를 갖춘 걸작이다.

TC 781690 [2 FOR 1,5]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치오, Op. 1

로베르토 네페리니(바이올린)

빠른 패시지 속에 숨어있는 섬세한 표현들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명징한 사운드

그뤼미오와 아카르도의 제자인 네페리니는 리피체르 콩쿨, 포스타키니 콩쿨, 페로시 콩쿨 등에서 1등을 거머쥔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다. E.R. 두니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수이며, 산마리노 공화국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는 등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1865년에 제작된 스카람펠라 바이올린으로, 명징하면서도 풍부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낸다. 이러한 특징으로 파가니니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기교가 명확하게 표현되며, 카프리치오의 빠른 패시지 속에 숨어있는 섬세한 표현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드러난다.

TC 900004

비탈리: 샤콘느, 알비노니: 아다지오, 코렐리: 파스토랄레 등

이 솔리스티 라우덴시, 파비오 메를리니(오르간, 지휘)

현악과 오르간을 위해 편곡된 바로크 시대의 명곡들

바로크 시대의 명곡들을 현과 오르간을 위해 편곡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오르간은 이탈리아 북서부 오넬리아 해변에 있는 산 안토니오 아베테 교회에 설치된 것으로, 오르간과 함께 현악의 사운드가 교회의 깊은 잔향을 타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음반에는 유명한 비탈리의 〈샤콘느〉의 레스피기 편곡과 알비노니의 〈아다지오〉가 수록되어있으며, 쇤베르크가 솜씨를 발휘한 비발디의 〈라르고〉와 로카텔리의 〈장송 교향곡〉, 코렐리의 〈파스토랄레〉 편곡은 흔히 들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테발디의 〈푸가〉와 보티의 〈비가〉도 아름답다.

TC 960203

벨라로폰테: 랩소디아 메트로폴리타나, 말루카 댄스, 나의 감각의 길 등

다비데 디 이에노(기타), 필리포 라탄치(마림바), 파트리크 데 리티스(파곳), 알도 페란티니(플루트), 과다니니 사중주단

가장 기타다운 화음과 라틴적인 감성으로 보여준 현대 기타의 새로운 미래

라파엘레 벨라로폰테는 바스토 국제음악제와 로세티 극장의 예술감독이자 캄포바소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탈리아의 중견 작곡가로, 그의 작품은 전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다. 이 음반은 그의 기타 작품을 모은 앨범으로, 그의 기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영된 역작들이 수록되었다. 이들은 가장 기타다운 화음과 현대적인 음색 조절, 라틴적인 감성으로 현대 기타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방가르드보다는 전통적인 음체계를 따르는 그의 작품은 빠르고 감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극적이고 과감한 표현은 현대인의 감성에 잘 부응한다.

Verso

www.verso-producciones.com

2001년에 설립된 '베르소'는

스페인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독립 음반사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스페인의 바로크 음악과 고전음악, 낭만음악, 근현대 음악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아방가르드 음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BBVA 재단과 공동으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음악들을 CD로 출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VRS 2015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류이스 클라레트(첼로)

모리스 장드롱을 이을 모범적이고 완벽한 연주

클라레트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도시국가 안도라 태생으로, 모리스 장드롱에게 배우고 카잘스 콩쿨(1976)과 로스트로포비치 콩쿨(1977)에서 우승했다. 바르셀로나 '빅토리아 델스 앙헬스' 음악학교와 툴루즈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류이스 클라레트' 콩쿨을 창설하여 운영하는 등 정상급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클라레트가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스승인 장드롱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벽하고 훌륭하다. 장드롱은 첼리스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연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제 클라레트의 연주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VRS 2018

데 파야: 스페인 민속 모음곡, 투리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톨드라: 여섯 개의 소네트

헤수스 앙헬 레온(바이올린), 미겔 앙헬 무뇨스(피아노)

스페인 음악의 황금기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작품들

데 파야는 20세기 전반 스페인의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서, 스페인의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선율과 프랑스의 세련된 화음을 결합했다. 〈스페인 민속 모음곡〉은 이러한 그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톨드라는 그의 후배이자 동료로서, 〈여섯 개의 소네트〉는 시에서 영감을 얻은 소품집이다. 드뷔시를 연상케 하는 들뜬 멜로디와 청량한 스페인적 감성이 어우러져 있다. 투리나는 스페인 최고의 기악곡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바이올린 소나타 1번〉에 클래식의 무게감과 스페인의 향기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VRS 2025

골트베르크: 첼발로 협주곡 D단조, E♭장조

자크 오흐(첼발로), 살라망카 대학 바로크 오케스트라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의 주인공, 골트베르크의 혁신적인 협주곡

요한 고틀리프 골트베르크는 JS 바흐의 제자이자 〈골트베르크 변주곡〉의 주인공이다. 그는 10대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이름을 떨쳤지만 29세로 요절하고 말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두 곡의 첼발로 협주곡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잘 보여주며, 대규모 고전 협주곡을 예견한다. 또한 바흐의 첼발로 협주곡이 10~20분 정도 길이인 데 비해 골트베르크의 곡은 30분 안팎에 이른다는 점은 놀라우며, 또한 CPE 바흐의 감정과다양식에 비견되는 혁신적인 작품이다. 살라망카 대학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폭넓은 다이나믹은 이러한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VRS 2043

16세기 비우엘라와 르네상스 기타를 위한 작품들

페르난도 에스피(비우엘라, 르네상스 기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연주로 청중을 감동시킨다

16세기 중엽의 비우엘라와 르네상스 기타를 위한 곡들로, 루이스 데 나르바에스, 아드리안 르 루아, 디에고 피사도르, 기욤 모를레, 프란체스코 다 밀라노, 알론소 무다라, 팔레즈-벨레르, 미겔 데 푸에냐나, 루이스 밀란 등의 작품들을 수록했다. 페르난도 에스피는 "오늘날 가장 뛰어난 스페인 기타리스트 중 한 사람", "오늘날 가장 뛰어난 6현의 연주자 중 한 사람", "지극히 정확하며 뉘앙스에 대한 굉장한 감각을 지녔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연주로 청중을 감동시킨다." 등의 격찬을 받고 있으며, 이 음반에서도 최상의 연주를 들려준다.

VRS 2061

슈만: 세 개의 로망스,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 생상스: 오보에 소나타 등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카바예르(오보에), 리카르도 체케티(피아노)

낭만시대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카바예르는 하인츠 홀리거의 제자로, 현재 그라나다 오케스트라의 수석 오보이스트이며 카탈루냐 고등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명쾌하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스페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서 슈만의 오보에 작품인 〈세 개의 로망스〉와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를 연주했으며, 생상스의 완숙한 작품이자 낭만시대의 희귀 작품인 〈오보에 소나타〉를 들려준다. 이외에도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주제로 작곡한 마스쿨리의 〈대협주곡〉과 오페라로 유명한 폰키엘리의 〈광시곡〉 등이 수록되어있다.

VRS 2065
보케리니: 네 개의 첼로 소나타
요셋스쿠 오브레곤(바로크 첼로), 라 리티라타

협주곡을 연상케 하는 풍부한 사운드와 극적효과를 배가하는 폭넓은 다이나믹

18세기 후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로 이름을 떨친 보케리니의 네 곡의 첼로 소나타를 수록했다. '라 리티라타'는 반주를 하프시코드로 하지 않고, 바로크 기타와 테오르보, 첼로의 통주저음 그룹이 연주한다. 그래서 협주곡을 연상케 하는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보다 폭넓은 다이나믹으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켰다. 독주자 또한 이러한 반주에 힘입어 더욱 극적인 아티큘레이션을 구사한다. 그 결과 축제에서 연주하는 것과 같이 화려하고 기분이 고양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보케리니의 첼로 소나타가 갖는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연주이다.

VRS 2084
카사도: 모음곡, E. 카잘스: 모음곡, 새의 노래 등
류이스 클라레트(첼로)

정상급 첼리스트 클라레트가 들려주는 무반주의 예술

클라레트는 도시국가인 안도라 태생으로, 모리스 장드롱에게 배우고 카잘스 콩쿨(1976)과 로스트로포비치 콩쿨(1977)에서 우승했다. 바르셀로나 '빅토리아 델스 앙헬스' 음악학교와 툴루즈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류이스 클라레트' 콩쿨을 운영하는 등 정상급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스페인의 위대한 첼리스트 카사도의 대표작 〈모음곡〉을 비롯하여, 클라레트의 스승이었던 엔리크 카잘스(파블로 카잘스의 동생)의 〈모음곡〉을 수록했다. 호안 긴호안의 〈비가〉와 브로톤스의 〈소나타〉는 현대인의 깊은 감수성이 깃들어있다.

VRS 2093
La Mutine: 16~17세기 테오르보 음악
로드리고 하라보(테오르보)

르네상스 음악에 정통한 연주자의 완벽한 예술

마드리드 왕립음악원과 카탈루냐 고등음악학교, 살라망카 대학교에서 공부한 하라보는 이지적이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연주자로 정평을 얻고 있다. "르네상스 음악 연주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취향을 지니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과 음악적인 측면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연주에서 이를 보여준다.",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연주자" 등 그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이를 대변한다. 로베르 드 비제의 륄리 편곡과 피치니니, 칼스페르거, 카스탈디 등 16~17세기 테오르보 음악에서 검증된 그의 예술적 감각이 펼쳐진다.

VRS 2124
스페인의 세레나데: 스페인의 기타 음악
다카기 마사유키(기타)

여러 국제 콩쿨을 휩쓴 실력파 기타리스트의 정열적인 스페인 기타 음악

다카기 마사유키는 스페인 기타음악 콩쿨, 스칸디나비아 국제 기타 페스티벌, 프랑스 국제 클래식 기타 콩쿨, 르네 바르톨리 국제 기타 콩쿨 등에서 입상한 실력파 기타리스트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스페인의 명곡을 연주했다. 〈아란후에스 협주곡〉의 작곡가인 로드리고가 작곡한 두 스페인 춤곡 〈판당고〉와 〈사파테아도〉를 비롯하여 스페인의 아름다운 도시를 그린 알베니스의 〈코르도바〉와 〈세비야〉, 고야의 명화인 '옷 벗은 마하'를 음악으로 표현한 그라나도스의 〈고야의 마하〉, 그리고 유명한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이 수록되어있다.

VRS 2142 **[2CDs for 1.5]**
타레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랑 호타 등
페르난도 에스피(기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아름다운 작품들과 클래식 명곡의 기타 편곡들

오늘날 클래식 기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단 한 곡의 덕택이 매우 크다. 이 아름다운 작품의 작곡가는 프란치스코 타레가로, 그는 19세기 말 스페인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이자 기타음악 작곡가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기타를 위한 편곡도 많이 남겼는데, 스페인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사람인 에스피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랑 호타〉 등 그의 작품들과 쇼팽의 〈녹턴〉, 구노의 〈아베 마리아〉, 베토벤의 〈월광〉 등의 편곡을 연주하여 두 장의 CD에 담았다.

VRS 2157
브람스: 두 개의 비올라 소나타, 헤어초겐베르크: 전설
아스한 피야이(비올라), 후안 카를로스 코르네예스(피아노)

브람스의 가장 위대한 비올라 소나타와 헤오초겐베르크의 숨겨진 명곡

브람스는 인생의 만년에 리하르트 뮐펠트라는 클라리네티스트의 연주에 감동하여 그를 위해 클라리넷 작품들을 작곡했다. 이 클라리넷 시리즈의 마지막은 두 개의 소나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그런데 브람스는 이 두 곡을 비올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재편집했는데, 오늘날에는 비올라에 매우 알맞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클라리넷보다는 비올라로 더 자주 연주되고 있다. 헤어초겐베르크는 브람스의 가까운 친구로, 그의 〈전설〉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아힘을 위해 작곡되었다. 슈만의 환상곡이 연상되는 낭만적인 작품이다.

에릭 사티(Erik Satie)의 기발하고도 유쾌한 음악세계로 향하는 흥미진진한 안내서

그의 서거 90주기가 되는 해인 2015년을 맞이하여 안네-캐트린 파이츠와 율리안 타바코프가 함께 연출한 색다른 스타일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인 '사티스픽션스 – 에릭 사티와의 산책'이 Accentus를 통해 한글자막과 함께 출시되었다.

'짐노페디'와 '그노시엔느' 연작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는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기발한 음악 스타일로 이후 프랑스 6인조를 비롯한 자국의 후배들은 물론, 현대 음악계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미니멀리즘 계열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의 독특한 이력과 괴팍한 인품, 그리고 기발하기 이를 데 없는 음악세계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희귀한 사진자료들, 그리고 재기발랄한 연주영상들과 요세피네 쇤의 아기자기한 캐리커처 애니메이션을 통해 흥미롭게 조망하고 있으며,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괴상한 미인', 야상곡 4번, '아몬드 초콜렛의 왈츠'등의 연주영상이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다큐멘터리의 곳곳에 삽입된 기발한 광고들은 실제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한글 자막

Accentus ACC 20312 **[DVD]**

[Award]
- Presented at International Festival of Films on Art (FIFA) 2015
- Platinum Award Winner (European Documentary)
- Documentary & Short International Movie Award 2015 (Indonesia)
- Official Selection – 5th Dada Saheb Phalke Film Festival 2015 (India)

[Format]
- **Languages:** English, French
- **Subtitles:** German, French, English, Korean, Japanese
- **Bonus:** Music by Erik Satie (La Belle Excentrique, Valse du Chocolat aux Amandes, Ce que dit la petite Princesse des Tulipes, Nocturne No. 4), Stock Market Report a la Satie
- **Bonus Running time:** 15:17 min
- **Bonus Languages:** German
- **Bonus Subtitles:** English
- **Disc Formats:** DVD-9
- **Number of Discs:** 1 (DVD)
- **Picture Formats DVD:** 16:9 NTSC
- **Sound Formats DVD:** PCM Stereo, Dolby Digital 5.1, DTS 5.1
- **Running time:** 56:22 min
- **Release Dates:** 09/2015 (DVD, Worldwide)
- **EAN Code DVD:** 4260234830910

[참고영상자료]
https://youtu.be/hYnSXw1mnmk

C Major Entertainment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0908 [DVD]
C Major 731004 [Blu-ray]

오펜바흐: 아름다운 엘렌

제니퍼 라모어(엘렌)/ 한준상(파리스)/ 페터 갈리아드(메넬라스)/ 빅토르 루드(아가멤논)/ 레베카 요 뢰브(오레스테) 외/ 게리트 프리스니츠/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유쾌한 유머와 신랄한 풍자가 어우러진 무대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코믹하게 비틀었던 〈지옥의 오르페〉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오펜바흐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패러디한 또 하나의 오페레타 걸작으로 자신의 성공신화를 이어나갔다. 1864년 파리 바레에테 극장에서 초연되었던 〈아름다운 엘렌〉이 바로 그것이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파리스와 헬레네(엘렌)의 유명한 불륜사건을 재치 있게 패러디한 이 오페레타의 내용은 19세기 중후반 프랑스 상류사회를 지배했던 공허하고도 향락적인 생활상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기도 하다. 본 영상물은 2014년 9월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의 무대에 올랐던 르노 두세의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두세는 호화 유람선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서 1960년대 히피들의 플라워 무브먼트로부터 최근의 그리스 경제위기에 이르는 다양한 소재들을 유쾌하고 기발하게 이 작품 속에 엮어 넣었다.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어와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의 주역가수로 활약 중인 우리 테너 한준상이 엘렌과 파리스를 각각 열연하였다.

[보조자료]

– 〈아름다운 엘렌〉은 오펜바흐 최고의 히트작인 〈지옥의 오르페〉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코믹하게 패러디한 작품이다. 스파르타의 비너스 신전 앞에서 스파르타의 왕비 엘렌(헬레나)은 예언자 칼카스로부터 주노, 아테나, 비너스 중에서 비너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한 파리스에게 비너스가 그 답례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인 자신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한다. 파리스가 등장하고, 남편 메넬라오스가 슬슬 지겨워졌던 엘렌은 파리스와 사랑에 빠진다. 메넬라오스의 방해로 파리스는 결국 추방당하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비너스는 모든 아내들의 절개를 흔들게 만듦으로써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결국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메넬라오스는 엘렌을 포기하고, 엘렌은 파리스와 함께 비너스의 성지인 시테라로 향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 본 영상물에서 주역인 파리스를 노래한 테너 한준상은 연세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이후, 함부르크 음악원에서 레나테 베흘을 사사하였다. 2005년에는 엘리제–마이어 콩쿠르에서 2등, 2006년에는 로베르트 슈톨츠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2006년부터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의 주요멤버로 활약하면서 〈라 칼리스토〉, 〈장미의 기사〉, 〈그림자 없는 여인〉, 〈사랑의 묘약〉, 〈팔리아치〉, 〈투란도트〉 등에 출연하였다.

– 1986년 모차르트의 〈티토 왕의 자비〉에서 세스토 역을 맡아 데뷔한 이래 제니퍼 라모어는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더불어서 현존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화려한 성악기교는 물론이거니와 무대 위에서의 능숙한 연기 덕분에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 중이다. 1994년 리처드 터커 상을 수상했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르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2002년 홍혜경과 함께 내한공연을 함으로써 한국 애호가들에게 한층 더 친근한 이름이 되었다.

C Major 732008 [DVD]
C Major 732104 [Blu-ray]

BBC 프롬스 – 드보르자크, 슈트라우스, 베토벤

율리아 피셔(바이올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진먼(지휘)

진먼과 취리히 톤할레, 1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고별 공연 무대

2014년 7월 21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 실황.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6번' 및 앙코르가 수록되어 있다. 1995년에 취리히 톤할레의 음악감독이 된 이후 10년에 걸쳐 이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진먼은 바로 이 공연으로 임기를 마감했다.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에서는 율리아 피셔가 독주를 맡아 명쾌하고 시원스런 연주를 들려주며, 슈트라우스와 베토벤에서 취리히 톤할레가 보여주는 민감한 반응은 존경하는 지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듯하다.

[보조자료]

– BBC 프롬스는 매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두 달에 걸쳐 영국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로, 90여개의 콘서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 최대의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95년에 시작된 뒤 쭉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영상물에는 120회에 해당하는 2014년 7월 21일의 공연이 담겨 있다. 이 공연은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와 데이비드 진먼 모두에게 특히 뜻 깊은 자리였다. 1995년에 취리히 톤할레의 음악감독에 취임한 뒤로 10년에 걸쳐 많은 개혁으로 이 악단을 스위스의 주요 오케스트라 정도의 지위에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반열에까지 올려놓은 데이비드 진먼이 바로 이날 공연으로 임기를 마감했던 것이다. 진먼은 자신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점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 대단히 편안하고도 확신에 찬 태도로 악단을 이끌어가며, 어느 곡에서나 다이내믹을 섬세하게 통제하면서 유려하고도 활기찬 연주를 이끌어낸다.

–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은 대단히 부드럽고 세련된 연주로 세기말적인 관능미를 십분 살린 연주이며, 진먼은 베토벤의 교향곡에서 목관의 장식음을 섬세하게 다듬어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는 정상급의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독주를 맡아 대단히 명쾌하고 시원스런 연주를 들려준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는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지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듯 모든 곡에서 진먼의 지시에 최대한 민감하게 부응하고 있다. 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신뢰관계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바로 이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곡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안토닌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앙코르 :** 힌데미트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사단조 중 3악장 피날레(율리아 피셔 연주),
'Evvia i soci'(플로리안 발저의 관현악 편곡)

C Major 731408 [DVD]
C Major 731504 [Blu-ray]

푸치니: 투란도트

물라다 쿠돌리(투란도트)/ 리카르도 마시(칼라프)/ 관쿤 유(류)/ 미하일 리소프(티무르) 외/ 파올로 카리냐니/ 빈 심포니커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의 진수를 보여주는 브레겐츠의 최신 〈투란도트〉 프로덕션

매년 여름 보덴호수에서 펼쳐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야외무대의 특성을 살린 웅장하고도 파격적인 무대로 오페라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5년 여름 이 호수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마르코 아르투로 마렐리 연출의 〈투란도트〉가 C Major를 통해 서둘러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같은 프로덕션을 2년 동안 반복 공연하는 이 페스티벌의 전통을 감안했을 때, 이 영상물에 담긴 무대는 2016년 여름에도 다시 공연될 것이다. 마렐리는 칼라프를 푸치니의 또 다른 자아로 설정하였다. 피아노 앞에서 작품을 궁리하던 푸치니는 어느새 환상속의 중국으로 빠져들어 간다. 거대한 만리장성이 무대의 배경을 이루고, 엑스트라들은 인민복을 걸친 병마용과 같은 이미지로 무대를 가득 메운다. 마린스키극장의 주역인 물라다 쿠돌리가 카리스마 넘치는 투란도트를 열연하였고, 여러 유명 할리우드 영화들에 스턴트맨으로 출연했던 독특한 이력의 테너 리카르도 마시가 칼라프를, 2008년 빈 벨베데레 콩쿠르 우승자이자 2012년 오페랄리아 콩쿠르 2위 입상자인 중국계 미국 소프라노 구안쿤 유가 류를 노래하였다.

[보조자료]

–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이자 미완성 상태로 남겨졌던 유작이다.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카를로 고치의 우화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역시 푸치니가 일본을 소재로 완성했었던 〈나비부인〉과 더불어 당시 유럽에 크게 인기를 얻고 있던 동양풍 취향을 적절히 충족시켜주었던 오페라다. 푸치니는 3막에 등장하는 류의 자살 장면 무렵에서 펜을 멈추고 말았는데, 이후의 미완성부분은 제자 알파노가 완성하였다. 이후 베리오를 비롯한 다른 작곡가들도 이 작품의 완결에 도전하였는데, 아직도 알파노 버전의 마무리가 가장 비번하게 공연되는 추세다. 본 영상물 역시 알파노의 엔딩 버전을 사용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스위스와의 국경 인근에 위치한 보덴호수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야외 오페라 축제로, 그 기원은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면 위에 거대한 고정 세트의 무대를 설치하여 한여름 내내 같은 프로덕션이 반복해서 공연되며, 2년 동안 동일한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5/6년에는 〈일 트로바토레〉(Opus Arte), 2007/8년에는 〈토스카〉(Phoenix Editon), 2009/10년에는 〈아이다〉(C Major), 2011/12년에는 〈안드레아 세니에〉(C Major), 2013/14년에는 〈마술피리〉(C Major)가 공연되었다.

– 스위스 취리히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인 마르코 아르투로 마렐리는 빈과 잘츠부르크, 그리고 함부르크 슈타츠오퍼를 거치면서 어시스턴트로 캐리어를 시작하였고, 빈 폴크스오퍼의 모차르트 사이클의 하나로 공연되었던 〈마술피리〉를 통해 연출가로 데뷔하였다. 이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빈 슈타츠오퍼, 드레스덴 젬퍼오퍼, 파리 국립오페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등의 일급 오페라 무대를 두루 섭렵하면서,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C Major 731808 [DVD]
C Major 731904 [Blu-ray]

R.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잉겔라 브림베르그(엘렉트라)/ 잉그리드 토비아손(클리탬네스트라)/ 수산나 레보넨(크리소테미스)/ 토마스 란더(오레스트) 외/ 루몬 감바/ 노르란즈오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르셀로나 '링'의 주역들이 만들어낸 스펙터클한 〈엘렉트라〉 프로덕션

노르란드 오페라는 스웨덴 북부 노르란드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우메오에 기반을 둔 오페라단체다.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우메오는 2014년에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는데, 노르란드 오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무대를 야심차게 준비하였다. 이는 R. 슈트라우스의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이벤트이기도 했는데, 작곡가의 초기 오페라 걸작인 〈엘렉트라〉를 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8,000 평방미터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스펙터클한 야외 오페라로 구현했던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링' 사이클로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파를 안겨주었던 바르셀로나 기반의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가 이 특별한 공연을 주도하였다. 거대한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핏빛 액체로 시작되는 이 퍼포먼스는 고대 그리스의 잔혹한 근친 복수극을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방식으로 연출해나간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거대한 크레인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흡사 로봇과 같은 메카닉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며, 가수들은 각각의 메카닉에 탑승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며 이 특별한 프로덕션을 이끌어 나간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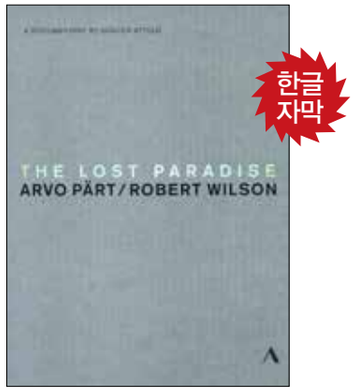
–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는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그리스 비극에 기초하여 완성한 호프만스탈의 리브레토에 기초하여 완성되었다.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은 트로이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당당히 개선하지만, 아내 클리탬네스트라와 그녀의 내연남인 애기스트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한다.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는 남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기만을 학수고대하지만, 여동생 크리소테미스는 복수에 미온적이다.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오보로 엘렉트라의 복수극도 위기를 맞지만, 결국 엘렉트라와 오레스트는 친모와 그녀의 불륜남을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완결한다.

– 1979년 바르셀로나에서 결성된 전위예술그룹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La Fura Dels Baus)는 아크로바틱이 접목된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중퍼포먼스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연단체다. 이들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최근 오페라 연출과도 자주 접목되고 있는데, 세간의 화제를 낳았던 주빈 메타 지휘의 발렌시아 '반지' 사이클과 게르기에프 지휘의 베를리오즈 〈트로이 사람들〉이 특히 유명하다. 이들은 톰 티크베어 감독의 2007년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군중장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2011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Rainbow Drops'라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 바르셀로나 출신의 연출가의 카를루스 파드리사는 1979년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창립멤버로 자신의 캐리어를 시작하였다.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퍼포먼스 연출은 물론, 연극과 오페라,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가 감독한 공포영화 '파우스트 5.0'은 2002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의 경쟁부문에 출품되기도 했다. 그가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연출했던 바르셀로나의 '링' 사이클은 오페라 연출의 신기원을 이룬 화제작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Accentus Music

www.accentus.com



Accentus ACC 20321 [DVD]

The Lost Paradis (실락원)
아르보 패르트와 로버트 윌슨

아담 수난곡의 제작과 음악에 대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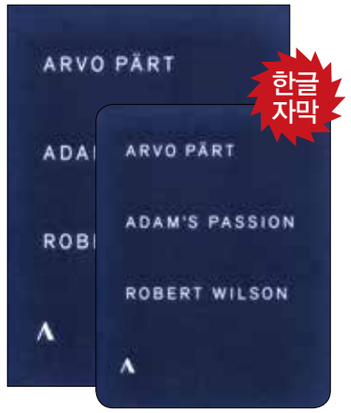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현대 작곡가로서 올해 2015년 80세를 맞이한 아르보 패르트의 신작 '아담 수난곡' 초연에 대한 제작과정과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 특히 압도적인 완성도를 자랑하는 무대연출을 담당한 로버트 윌슨의 연출노트가 담겨 있어 '아담 수난곡'의 연주실황을 담은 블루레이를 심도 깊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함께 구입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그러한 어펜딕스적인, 그러나 그 자체로도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구바이둘리나, 힐러, 기돈 크레머 등등의 인터뷰에 힘입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아르보 패르트라는 작곡가를 보다 다면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보조자료]

– '실락원'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영상물은 아르보 패르트가 2015년에 발표한 신작 오라토리오인 '아담 수난곡'과 패르트의 음악세계 전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이 영상물은 패르트의 인터뷰와 활동, 에스토니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 '아담 수난곡' 초연에 대한 것으로서 연출가인 로버트 윌슨이 자신의 연출에 대한 관점과 무대 제작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고 지휘자인 토누 칼유스테가 패르트 음악에 담긴 의미와 작품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한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와 파울 힐러, 기돈 크레머 등등 패르트와 절친한 사이의 음악가들이 인터뷰이로 등장하여 작곡가의 생애와 그의 음악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들려주어 '아담 수난곡'을 넘어서서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아르보 패르트라는 작곡가를 보다 다면체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다.

–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현대 작곡가인 아르보 패르트. 그는 올해 2015년 80세를 맞이했다. 1970년 이후 러시아 정교회로 종교를 바꾼 이후 그는 인간 본연의 본성과 현대인의 치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980년 소비에트의 정치적 압박을 피해 비엔나를 거쳐 베를린에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한 그는 이후 30여년 동안 국제적인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아갔다. 이 영상물의 주제가 된 '아담 수난곡'은 총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시퀘엔티아(Sequentia) – 아담의 탄식(Adam's Lament) – 타불라 라사(Tabula rasa) – 미제레레(Miserere). 이전에 작곡하여 자신의 여러 음악적 동료들에게 헌정한 바 있는 아담의 탄식, 미제레레, 타불라 라사를 배열한 뒤, 맨 앞에 위치한 시퀘엔티아를 새로 작곡하여 '아담 수난곡'을 완성한 것이다. 작곡가는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자 이에 대답해 주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인 셈이다. 아담의 이야기는 인류 모두의 이야기로서 일종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015년 5월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위치한 잠수함 공장인 노블레스너 파운드리에서의 공연을 위해 미국의 저명한 연출자이자 감독인 로버트 윌슨이 가세했다. 이 '아담 수난곡'은 음악도 탁월하지만 음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시각적 세계를 구축한 윌슨의 연출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프로덕션이다. 그는 성 시스테나 성당에서 교황을 알현하며 패르트의 음악을 처음 듣고 그를 만나 함께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한다. 패르트의 음악은 고요의 음악으로서 연주하기 전과 연주한 뒤의 고요, 겉으로는 움직이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존 케이지의 말대로 음악이 연주되더라도 고요는 진행된다. 멈춤이 없고 진행만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윌슨의 제작과정을 바로 이 영상물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그는 빛이 없으면 공간도 없다고 언급하며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 있음을 조명을 통해 보여주는 한편, 음악의 의미 때문에 동작이 방해받지 않는 연출을 통해 음악과 연출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 무대를 만들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이를 위해 그는 음악 없이 연출을 한 다음 음악을 들으며 수정, 동작이 음악에 종속되지 않도록 했는데, 여기 담긴 리허설 장면을 통해 그 절제되었으면서도 내면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동작과 빛의 구도가 주는 집중력과 엑스타시를 만끽할 수 있다.



Accentus ACC 20333 [DVD]
Accentus ACC 10333 [Blu-ray]

아르보 패르트: 아담 수난곡

탈린 첨버 오케스트라/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첨버 합창단/ 토누 칼유스테(지휘)

아르보 패르트의 새로운 종교 합창곡인 '아담 수난곡'

아르보 패르트의 새로운 종교 합창곡인 '아담 수난곡'을 수록하고 있는 영상물. 이 프로덕션은 미국 출신의 저명한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이 패르트의 음악에 연출을 맡아 제작한 무대로서 2015년 5월 12일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 위치한, 옛 잠수함 공장인 노블레스너 파운드리에서 공연한 세계초연무대다. 아담의 탄식, 미제레레, 타불라 라사를 배열한 뒤 맨 앞에 위치한 시퀘엔티아를 새로 작곡한 곡으로서, 무엇보다도 아담 역을 맡은 전라의 남자 배우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조명과 상징적인 무대, 절제된 구도와 같은 연출이 돋보인다. 게다가 객석 뒤에 위치한 오케스트라의 신비로운 울림 또한 무대와 음악의 분위기를 적확하게 전달해 준다.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극적 집중력과 탐미적인 영상미가 쉼 없이 솟구치는 대단히 귀중한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1935년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난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새로운 종교 합창곡인 '아담 수난곡'을 수록하고 있는 영상물. 이 영상물은 단순히 음악만을 연주한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음악과 무대, 청중이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극양식의 연출을 담은 총체적인 공연 실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프로덕션은 미국 출신의 저명한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 1941년생)이 패르트의 음악에 연출을 맡아 제작한 무대로서 2015년 5월 12일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 위치한 노블레스너 파운드리에서 공연한 세계초연무대다.

– '아담 수난곡'은 총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시퀘엔티아(Sequentia) – 아담의 탄식(Adam's Lament) – 타불라 라사(Tabula rasa) – 미제레레(Miserere). 이전의 '요한 수난곡'에서 보여준 패르트만의 독창적인 정신세계를 계승하는 작품으로서 종교적인 요소보다는 이야기 그 자체에 담긴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프로덕션을 위해 이전에 작곡하여 자신의 여러 음악적 동료들에게 헌정한 바 있는 아담의 탄식, 미제레레, 타불라 라사를 배열한 뒤 맨 앞에 위치한 시퀘엔티아를 새로 작곡하여 '아담 수난곡'을 완성한 것이다. 작곡가는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자 이에 대답해 주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인 셈이다. 아담의 이야기는 인류 모두의 이야기로서 일종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시종일관 패르트 특유의 선명한 화성과 신비로운 울림이 펼쳐지며 아담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이 공연은 마법에 가까운 빛의 향연, 여러 모티브들과 간략한 미장센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아름다움을 내뿜으며 상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윌슨과 패르트는 이 프로젝트가 그들의 첫 번째 협력작품이지만 이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수십 년 동안 함께 한 것처럼 완벽하게 느껴진다. 이 공연이 펼쳐진 탈린의 노블레스너 파운드리는 구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잠수함 공장으로서, 이 낡고 음습하지만 역사성과 인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이 장소에 무대를 만들고 청중들 사이로 일종의 캣워크를 배치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청중들 뒤, 공장의 뒤쪽 벽면에 위치시켰다. 청중은 정면의 무대와 옆의 캣워크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고 음악은 뒤에서 연주되며 마치 교회처럼 공장안을 자연스럽게 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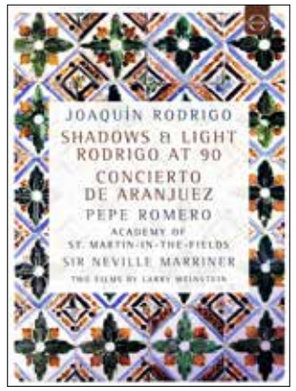
– 전라의 남자 배우가 아담역을 맡아 시종일관 무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사과나무가지와 소년, 마녀 등등이 등장하며 이 작품에 담긴 내용을 대사 없이 동작으로만 청중에게 전달한다. 특히 미제레레에 등장하는 여러 기호와 상징은 패르트가 음악에 담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서 극적인 감흥을 안겨준다. 음악이 있는 독특한 마임으로서 현대의 극양식과 인간 본연의 심연을 고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탈린 첨버 오케스트라와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첨버 합창단을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토누 칼유스테(Tõnu Kaljuste)가 지휘한다. 도시 근교의 호숫가로 시작하는 이 영상물의 첫 장면부터 커튼콜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르보 패르트의 모습까지,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극적 집중력과 색다른 영상미가 쉼 없이 솟구치는 대단히 귀중한 영상물이다.

Accentus ACC 20312 [DVD]

다큐멘터리 "에릭 사티와의 산책"

에릭 사티의 기발하고도 유쾌한 음악세계로 향하는 흥미진진한 안내서

'짐노페디'와 '그노시엔느' 연작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는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기발한 음악 스타일로 이후 프랑스 6인조를 비롯한 자국의 후배들은 물론, 현대 음악계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미니멀리즘 계열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의 서거 90주기가 되는 해인 2015년을 맞이하여 안네-캐트린 파이츠와 율리안 타바코프가 함께 연출한 색다른 스타일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인 '사티스픽션스 – 에릭 사티와의 산책'이 Accentus를 통해 한글자막과 함께 출시되었다. 그의 독특한 이력과 괴팍한 인품, 그리고 기발하기 이를 데 없는 음악세계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희귀한 사진자료들, 그리고 재기발랄한 연주영상들과 요세피네 쇤의 아기자기한 캐리커처 애니메이션을 통해 흥미롭게 조망하고 있으며,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괴상한 미인', 야상곡 4번, '아몬드 초콜렛의 왈츠'등의 연주영상이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다큐멘터리의 곳곳에 삽입된 기발한 광고들은 실제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EuroArts 2061118 [DVD]

로드리고: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 아랑훼스협주곡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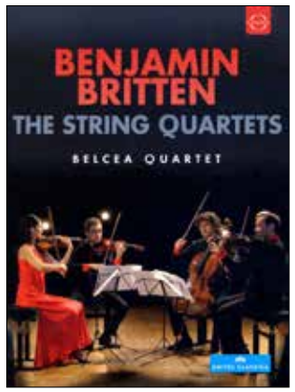
페페 로메로(guitar)/ 네빌 매리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호아킨 로드리고의 생애와 그의 대표작인 아랑후에스협주곡를 함께 담은 영상물

기타협주곡의 대명사와도 같은 걸작인 '아랑후에스협주곡'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는 1901년 발렌시아 인근의 작은 항구도시인 사군토에서 태어났다. 그는 3세 때에 디프테리아의 후유증으로 실명하게 되었지만, 부단한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으로 장애를 극복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늘과 빛'(Shadows & Light)은 1991년 그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70분 분량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로, 로드리고가 걸어왔던 남다른 인생여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그를 대표하는 걸작인 '아랑후에스협주곡'의 연주 영상 또한 본 신보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기타 거장의 한 사람인 페페 로메로가 네빌 매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협연한 기록으로, 이 작품 곳곳에 깃들어 있는 이국적인 색채와 빼어난 선율미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연주에 앞서서 이 작품에 대한 페페 로메로 본인의 해설이 덧붙어 있는데, 로드리고가 그에게만 밝혔다는 이 작품 이면의 이야기들도 확인해볼 수 있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72768 [DVD]

브리튼: 현악사중주 1–3번

벨체아 쿼텟

벨체아 쿼텟의 빼어난 앙상블을 통해 만나는 브리튼의 독특한 작품세계

루마니아 출신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코리나 벨체아가 이끄는 벨체아 현악사중주단은 다이내믹하고도 이지적인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챔버 앙상블로, EuroArts를 통해 출시되었던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의 영상물로 국내외 많은 실내악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었다. 이들의 두 번째 영상물 도전작은 브리튼이 남긴 3편의 현악사중주들이다. 벨체아 쿼텟은 지난 2005년에 EMI를 통해 출시했었던 브리튼 현악사중주 CD로 Midem Cannes Awards를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브리튼 스페셜리스트들로 등극하였는데, 2014년 6월 파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소규모 공개 연주회의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에서도 정밀한 앙상블과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명성에 걸맞은 실력을 확인시켜준다. 브리튼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각각 완성했던 현악사중주 1,2번에는 젊은 작곡가의 패기와 도전적이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빛나는 반면, 사망 1년 전에 완성했던 현악사중주 3번은 만년의 작곡가에게 깃든 비감과 쓸쓸함이 파격적인 악장 구성을 통해 표현된 작품이다.

EuroArts 2053094 [Blu-ray]

2003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콘서트 거쉰: 파리의 아메리카인,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협주곡 외

최고의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실력파 재즈 뮤지션들의 황금빛 만남

매년 여름마다 베를린 교외의 숲속에서 펼쳐지는 베를린 필의 발트뷔네 콘서트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와 더불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봉을 잡았던 2003년의 콘서트는 조지 거쉰의 대표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5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을 통해 세계 최정상급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등극한 마커스 로버츠가 특별히 참여하여 재즈와 클래식이 조화를 이룬 거쉰의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더욱 감동적으로 펼쳐 보인다. 김연아 선수에게 밴쿠버의 영광을 선사했던 거쉰의 피아노협주곡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우리 음악애호가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올 영상물이다.

EuroArts 2053654 [Blu-ray]

2004년 유로파 콘체르트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1번, 피아노사중주 1번 (쇤베르크 관현악 편곡)

다니엘 바렌보임(pf)/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한 때 경쟁자들이었던 래틀과 바렌보임이 만들어내는 멋진 파트너십

베를린 필이 자신들의 창립기념일인 5월 1일을 맞아 해마다 유럽 각지의 명승지를 순회하면서 펼쳐지는 유로파콘체르트는 한여름의 야외음악회인 발트뷔네 콘서트와 더불어 이 세계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양대 음악이벤트로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영상물은 그리스 아테네에 남아있는 AD 2세기의 유적인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졌던 지난 2004년의 유로파콘체르트를 수록하였다. 단원들의 여전한 지지 속에 2018년까지 임기를 연장한 상임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지휘봉을 잡았고, 1999년 래틀이 취임했을 당시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혔었던 다니엘 바렌보임이 독주자로 참여하였다. 이들 두 거장들은 한 때 세계최고의 악단을 두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펼치기도 했던 사이였지만, 본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통해 뛰어난 파트너십을 펼쳐 보이면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쇤베르크의 감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편곡된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1번이 함께 연주되었다.

EuroArts 2060894 [Blu-ray]

2015년 유로파 콘체르트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슈만: 교향곡 3번 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vn)/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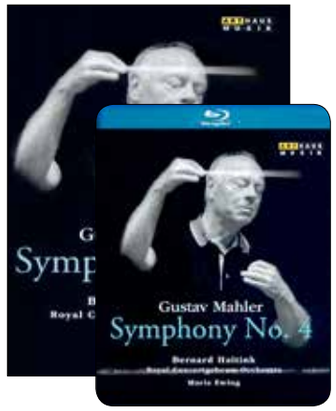
그리스의 자랑 레오니드 카바코스가 함께한 2015년 유로파콘체르트

베를린 필하모니는 1991년부터 자신들의 창립기념일인 5월 1일마다 유럽 각지의 명소들을 순회하면서 'Europakonzert'라는 특별한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여름의 야외음악회인 발트뷔네콘체르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양대 음악 이벤트로서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5년의 유로파콘체르트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펼쳐졌다. 2004년에 이어서 이 도시에서의 두 번째 유로파콘체르트인데,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 진행되었던 지난번과 달리, 2015년에는 최신 시설의 콘서트홀인 MEGARON에서 연주회가 펼쳐졌다. 이제 머지않아 악단의 수장자리에서 내려올 사이먼 래틀이 지휘봉을 잡았던 이날의 콘서트에서는 그리스가 배출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카바코스가 자신의 출세작과도 같은 작품인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하였고,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서곡과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이 함께 연주되었다. 카바코스가 앙코르곡으로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 3번 중 라르고도 함께 수록되었다.

ARTHAUS MUSIK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108 [DVD]
Arthaus 109109 [Blu-ray]

말러: 교향곡 4번

마리아 유잉(sop)/ 베르나르드 하이팅크/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하이팅크가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를 떠나기 앞서 남겼던 소중한 기록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를 처음 지휘했던 것은 그의 나이 불과 27세 되던 해였던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63년에 그는 34세의 젊은 나이로 이 위대한 악단의 수장 자리에 올랐고, 리카르도 샤이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던 1988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었다. 본 영상물은 그가 사임하기 2년 전인 1986년에 가졌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그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말러의 교향곡 4번은 작곡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채들의 가장 훌륭한 조합'이라고 칭했던 작품으로, 하이팅크의 혜안과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빼어난 기량은 이 작품을 덮고 있는 화사한 색채와 생기발랄한 기운, 그리고 서정적 선율미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마지막 악장에 등장하는 미국 소프라노 마리아 유잉의 노래는 최근의 트렌드에 비해 성질이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미감으로 천상의 세계를 그려내었다.

Arthaus 109121 [DVD]
Arthaus 109122 [Blu-ray]

야나첵: 타라스 불바
드보르작: 숲 비둘기

바츨라프 노이만/ 체코 필하모닉

체코의 위대한 거장 바츨라프 노이만이 들려주는 드보르작과 야나첵의 걸작들

1896년에 창립된 체코 필은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국은 물론,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일급 악단의 하나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다. 특히 라파엘 쿠벨릭, 카렐 안체를, 바츨라프 노이만이 연이어 악단을 이끌었던 20세기 중후반의 활약상은 이들 최고의 황금기로 기억된다. 본 영상물은 1968년에 상임지휘자에 취임한 이후,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던 위대한 거장 바츨라프 노이만이 1986년 프라하의 스메타나홀에서 가졌던 콘서트 실황을 담고 있다. "숲 비둘기"(Holoubek)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온 드보르작이 자국의 전래 기담들을 기반으로 완성했던 4편의 교향시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선율미와 드라마틱한 작품 구성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율 브린너 주연의 추억의 명화 "대장 부리바"와 동일한 소재를 다룬 야나첵의 대표 관현악 걸작 "타라스 불바"가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수많은 행진곡을 남겼던 '보헤미아의 수자' 율리우스 푸칙의 친근한 행진곡과 폴카들의 연주 영상이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Arthaus 109117 [DVD]
Arthaus 109118 [Blu-ray]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

프란스 브뤼헨/ 18세기 오케스트라

프란스 브뤼헨과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최전성기를 담은 소중한 영상기록

지난 2014년 8월 13일에 작고한 프란스 브뤼헨은 시대악기 연주분야에 있어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거물 음악가다.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리코더와 플루트를 전공했던 그는 리코더연주자로서 처음 음악계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는 얍 슈레더, 안느 빌스마,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등과의 긴밀한 협력 작업을 통해 이후 한 시대를 풍미한 시대악기연주분야의 단단한 기초를 다졌던 선각자의 한 사람으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 1981년에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18세기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지휘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그가 90년대 초반 Philips 레이블에서 완성했던 베토벤 교향곡전집은 지금까지도 시대악기에 의한 레코딩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전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본 영상물은 1987년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에서 있었던 18세기 교향악단과의 콘서트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브뤼헨의 명료한 해안과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전성기 활약상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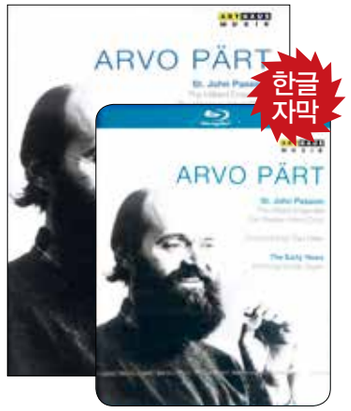
Arthaus 109119 [DVD]
Arthaus 109120 [Blu-ray]

말러: 교향곡 3번

캐롤린 왓킨슨(ms)/ NOS 여성합창단/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하이팅크와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1983년 크리스마스 마티네 콘서트 실황

베르나르드 하이팅크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이자 말러와 브루크너 두 작곡가 모두에 정통했던 몇 안 되는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러의 교향곡들에 대한 자신의 남다른 혜안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는데, 1983년 12월 25일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 역시 말러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그의 명성과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영국의 중견 메조소프라노인 캐롤린 왓킨슨이 참여했던 이 말러 교향곡 3번의 실황은 Phillips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던 하이팅크의 유로비전 크리스마스 마티네콘서트 말러 교향곡선집 Box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이후의 여러 연주들보다 한층 더 열정적으로 말러의 변화무쌍한 음악세계를 그려내었던 하이팅크의 전성기 시절 모습을 만나게 된다. 80년대 중반에 촬영된 영상답게 지금 기준에서 다소 열악한 해상도의 4:3 비율의 화면이지만, 하이팅크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중후하고도 정교한 연주는 여전히 묵직한 울림의 감동을 만들어낸다.



Arthaus 109115 [DVD]
Arthaus 109116 [Blu-ray]

패르트: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 요한수난곡

마이클 조지(예수)/ 존 포터(빌라도)/ 폴 힐리어/ 힐리어드 앙상블

패르트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다큐멘터리와 요한수난곡 공연실황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철의 장막에 가려져있던 구소련 출신의 일군의 작곡가들이 서방세계에 가져다주었던 충격파는 대단한 것이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작은 종소리를 의미하는 '틴티나불리'로 대변되는 그의 독특한 작품세계는 중세 및 르네상스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예스런 서법과 우리의 정서와도 와닿는 풍부한 여백의 묘미로 기존의 서구 음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었다. 그의 탄생 80주년인 2015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본 영상물에는 그의 생애를 지근에서 관찰했던 도리아 수핀이 제작한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The Early Years'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요한수난곡의 공연실황이 함께 수록되었다. 요한수난곡은 요한복음서의 18,19장의 라틴 불가타 판본을 텍스트로 사용한 작품으로, 예수와 빌라도를 노래하는 2명의 독창자와 더불어 4명의 보컬 앙상블이 복음사가 역할을 담당하는 독특한 형식의 종교합창곡이다. 1988년 영국 더럼 대성당에서의 공연실황이며, 다큐멘터리와 수난곡 양쪽 모두에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Arthaus 109123 [DVD]
Arthaus 109124 [Blu-ray]

킹스 싱어즈 마드리갈 히스토리 투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세속성악곡들

화면으로 만나보는 르네상스 마드리갈에 대한 킹스 싱어즈의 놀라운 역작

1968년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채플 합창단 출신의 여섯 성악가들이 모여서 결성한 킹스 싱어즈는 비록 많은 멤버 교체를 겪기는 했지만, 정통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양 분야 모두에서 반세기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꾸준히 활약하면서 명실상부한 우리 시대 최고의 보컬 앙상블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의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84년에 BBC와 RM Arts가 공동으로 제작했던 영상물인 '마드리갈 히스토리 투어'가 드디어 Arthaus를 통해 DVD와 Blu-ray 포맷으로 재출시되었다. 프랑스의 르아르 일대,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스페인의 살라망카, 영국의 펜셔트 플레이스, 이탈리아의 만토바 등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차례로 순례하면서 르네상스시대의 다섯 나라들의 시대상과 당대의 음악들에 대한 다채로운 설명과 더불어, 각 나라들을 대표할만한 세속성악곡들을 노래한 본 영상물은 촬영시기에 따른 다소 열악한 화면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킹스 싱어즈의 빼어난 앙상블을 감상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르네상스시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rthaus 109125 [DVD]
Arthaus 109126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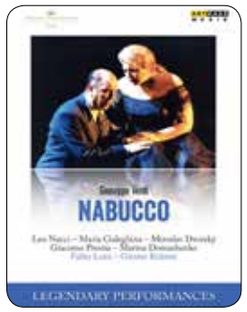
키리 테 카나와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 콘서트 실황

키리 테 카나와(sop)/ 스티븐 바로우/ 로열 오페라 오케스트라 외

우리 시대의 위대한 리릭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의 삶과 예술

부드럽고도 따뜻한 음성으로 20세기 후반을 주름잡았던 세계적인 리릭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는 1944년 뉴질랜드의 기스본에서 태어났다. 친부모의 정체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오리 혈통의 입양아가 대중가수의 삶을 거쳐서 오페라 무대의 슈퍼 디바로 거듭나기까지의 인생여정은 한편의 입지전적인 드라마와도 같은데, 1991년에 제작된 그녀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게오르그 솔티, 콜린 데이비스, 제프리 테이트와 같은 거장들의 회고담과 더불어, 그녀가 참여했던 역사적인 무대들과 한 시대를 대표했던 슈트라우스 히로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담고 있는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7만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했던 뉴질랜드 웰링턴의 야외무대 콘서트와 그린위치 왕립 해군학교에서의 콘서트 실황들도 함께 수록되었는데, 우리에게 '연가'로 친숙한 뉴질랜드민요 'Pokarekare Ana'와 비숍의 '즐거운 나의 집'에서부터 푸치니와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 모차르트의 종교곡 '기뻐하며 환호하라'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그녀의 매력적인 음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58 [Blu-ray]

베르디: 나부코

레오 누치, 나부코/ 마리아 굴레기나, 아비가엘/ 미로슬라브 드보르스키,이스마엘레/ 마리나 도마센코, 페네나/ 파비오 루이지, 지휘/ 빈 슈타츠오퍼 2001년 빈 슈타츠오퍼에서의 공연

21세기에 부활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대하서사시

1842년 라스칼라에서 초연된 '나부코'는 베르디를 일약 이탈리아의 국민 오페라 작곡가로 등극시킨 희대의 출세작이었다. 이전작의 참담한 실패로 의기소침해있었던 베르디는 이 작품의 큰 성공으로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폭군 나부코(느부가넷살)의 압제 하에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적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치하에서 독립을 열망하던 이탈리아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가져왔고, 나아가 뜨거운 애국적 열정으로 승화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3막 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탈리아인들의 독립의 의지를 담은 대표적인 저항가요로 이내 자리 잡았다. 2001년 빈 슈타츠오퍼에서의 공연을 담은 이 영상물은 구약시대의 영웅담을 현대적인 시각과 배경에서 재해석하였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바리톤인 레오 누치가 타이틀 롤을 노련하게 노래하였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가 강렬한 카리스마로 아비가일의 끝없는 야망을 연기하였다. 지순한 페네나 역을 맡은 미모의 메조소프라노 마리나 도마센코와 이스마엘레 역의 미로슬라브 드보르스키의 열창 또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저명한 연출가 귄터 크레머의 연출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변화상을 섬세하게 그려내었고, 최근 빈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에 임명된 실력파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지휘로 일사불란하게 이 대작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Arthaus 109170 [Blu-ray]

[특별한 가격]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이 시대의 드라마티코 호세 쿠라, 베리즈모 오페라의 진수를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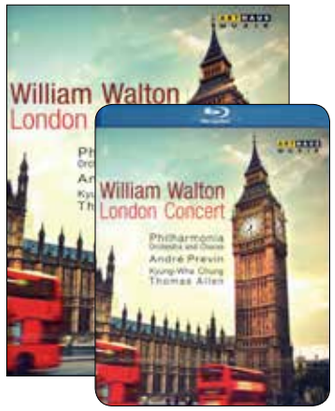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는 누구일까? 새로운 스타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레퍼토리와 연륜을 감안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호세 쿠라(1962~)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드라마티코 마리오 델 모나코와 존 비커스를 합쳐놓은 이미지의 쿠라는 거칠고 무례한 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 또한 지휘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정도로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적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가 베리즈모 오페라의 대표작 두 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에 나란히 출연했다. 베리즈모 오페라란 치정으로 얽힌 암울한 상황을 그려낸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를 말하는데, 이 두 작품은 각각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라틴적인 격정이 빚어내는 비극과 지중해권의 아름다운 풍광을 절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2009년 취리히 오페라 최신 실황이며 동 극장의 예술감독 그리샤 아사가로프가 직접 연출을 맡았는데, 암울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무대를 꾸몄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는 국내에도 팬이 많은 파올레타 마로쿠가, 〈팔리아치〉에는 피오렌차 체돌린스, 카를로 구엘피가 호세 쿠라와 함께 출연했다.

[보조자료]

– 이탈리아, 특히 가난한 지역인 남부 민중들의 거친 삶과 원초적인 사랑을 소재로 삼은 것이 베리즈모 오페라다. 1890년대와 20세기 초에 붐을 이루었는데 이중 최초에 속하는 작품이자 내용이나 음악에 있어서도 가장 전형적인 걸작이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다. 한때 두 오페라는 하룻밤에 공연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연주시간을 빼면 실제 규모가 만만치않은 작품들이라 요즘은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역시 묶어서 보는 것이 제 격이다.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주인공 투리두가 군대에 다녀 온 사이 옛 연인 롤라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마부 알피오와 결혼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투리두는 대신 산투자와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롤라가 다시 투리두를 유혹하자 그는 옛 사랑에 빠져든다. 이를 질투한 산투차는 이 사실을 알피오에게 알리고 마는데...

– 〈팔리아치〉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늙은 순회극단 단장 카니오의 얘기다. 아내 넷다는 실비오라는 남자와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남편에게 들켜버린다. 카니오는 처절한 심경이 되지만 공연을 위해 억지로 광대 분장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공연하는 희극이 바로 현실에서와 똑같은 내용이다. 카니오는 연기 도중에 실제와 연극을 분간하지 못하는 광기에 빠져 버린다.



Arthaus 109110 [DVD]
Arthaus 109111 [Blu-ray]

윌리엄 월턴 – 런던 콘서트

정경화(바이올린), 토머스 앨런(바리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앙드레 프레빈(지휘)

35세의 정경화가 80세의 작곡가 앞에서 연주한 소중한 기록

1982년 로열 페스티벌 홀 실황. 윌리엄 월턴은 20세기에 태어난 영국 작곡가 가운데 브리튼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이 영상물은 월턴 탄생 80주년 기념 공연 실황으로, 작곡가가 참석한 가운데 촬영되었다. 프로그램은 월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세 곡, '대관식 행진곡'과 '바이올린 협주곡', 칸타타 '벨샤자르의 향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는 당시 35세였던 정경화가 독주를 맡아 특유의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벨샤자르의 향연'에서는 영국이 자랑하는 바리톤 토머스 앨런이 독창을 맡았다.

[보조자료]

– 윌리엄 월턴(1902~1983)은 20세기에 태어난 영국 작곡가 가운데 동료인 벤저민 브리튼에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한다. 이 영상물은 1982년에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월턴 탄생 80주년 공연 실황을 담고 있다. 이 공연은 작곡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월턴은 그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월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세 곡, '대관식 행진곡 : 보주와 왕홀'과 '바이올린 협주곡', 칸타타 '벨사살의 향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곡 '대관식 행진곡'은 월턴이 1936년에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행사를 위해 작곡한 것으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비슷한 분위기를 지녔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듬해인 1937년 작품으로, 같은 작곡가의 '비올라 협주곡'만큼 해당 레퍼토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지닌 수작이다.

– 여기서는 당시 35세였던 정경화가 독주를 맡아 특유의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며, 그녀와 오랜 세월에 걸쳐 호흡을 맞춘 바 있는 프레빈은 능숙하면서도 편안한 반주로 그녀를 뒷받침하고 있다.

– 마지막 수록곡인 '벨샤자르의 향연'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벨샤자르(벨사살) 왕의 이야기에 기초한 칸타타로, 월턴의 작품 가운데서도 대작에 속하며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이다. 여기서는 영국이 자랑하는 바리톤 중 한 명으로 당시 한창 전성기에 있던 토머스 앨런이 독창을 맡았다.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40 [Blu-ray]

마스네: 베르테르

마르첼로 알바레스(테너), 엘리나 가란차(소프라노), 필리프 조르당(지휘)

마르첼로와 가란차, 두 스타 성악가의 이상적인 호흡이 빛난다

2005년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인 안드레이 세르반은 프로덕션의 배경을 1950년대의 작은 마을로 설정해 괴테의 소설에 기초한 다소 감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등장인물 사이의 정교한 심리적 갈등구조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필리프 조르당은 자신의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데뷔작인 이 프로덕션에서 섬세한 표현으로 감정 변화를 멋지게 전달하며,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타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스는 라트비아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와 이상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 12분짜리 보너스 영상도 놓치지 말 것.

[보조자료]

– 쥘 마스네의 〈베르테르〉는 대본 면에서는 괴테의 원작을 감상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음악만큼은 누구나 작곡가의 최고 걸작으로 인정하는 작품이다. 단순한 선율로 강렬한 감정 표현을 곧잘 해내곤 하는 마스네의 솜씨가 여기서 십분 발휘되었다. 루마니아 출신 미국 연출가로 우상파괴적인 연출로 유명한 안드레이 세르반은 약간 진부해진 감도 없지 않은 이 오페라의 배경을 1950년대의 작은 마을로 바꾸었다. 폐쇄공포증을 일으킬 법한 답답한 마을 분위기는 세르반이 등장인물 사이의 심리적 갈등구조를 정교하게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설정한 것으로, 그는 이를 통해 단순한 금욕과 극기심 이면에 자리한 감정을 관객이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했다.

– 스위스 출신 지휘자인 필리프 조르당은 자신의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데뷔작이기도 한 이 프로덕션에서 오케스트라의 표현을 섬세하게 다듬어 이 오페라의 감정적 변화를 멋지게 전달했다. 1962년생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타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스에게 베르테르 역은 대표적인 장기에 해당한다. 그가 1997년에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알프레도 크라우스 대신 이 배역을 노래한 것은 그의 경력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2005년 당시 그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르면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지만, 빈에서 어느 프로덕션의 초연 무대에 선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마르첼로와 라트비아 출신으로 역시 스타 메조소프라노인 엘리나 가란차는 이 오페라에서 이상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엘리나 가란차의 섬세한 연기는 이 성악가가 이른바 '바지 배역'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게 할 정도로 여성적인 감수성을 빼어나게 표현하고 있다.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42 **[Blu-ray]**

베르디: 리골레토

마르첼로 알바레스(테너), 인바 물라(소프라노), 헤수스 로페스-코보스(지휘)

두 '알바레스'의 불꽃 튀는 대결이 볼 만한 〈리골레토〉

2004년 리세우 대극장 실황. 실험적인 연출과 작품에 대한 수정주의적 접근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무대감독 그레이엄 비크는 드라마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타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스는 당당하고 힘찬 가창을 들려주며, 스페인 출신 바리톤인 카를로스 알바레스는 베르디가 염두에 둔 궁정 어릿광대의 진정한 본보기로 찬사를 받았다. 탁월한 베르디 전문 소프라노인 인바 물라 역시 두 사람에 뒤지지 않는 활약을 보여준다. 헤수스 로페스-코보스의 노련한 지휘 역시 인상적이다.

[보조자료]

– 그레이엄 비크는 영국의 오페라 전문 연출자로 최근에는 버밍엄 오페라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실험적인 연출과 수정주의적인 태도로 작품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서는 드라마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폴 브라운의 무대 세트와 의상 역시 비크의 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62년생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타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스는 경력 초기부터 〈리골레토〉의 만토바 공작 역을 노래했다. 1995~1999년 사이에 그는 이 배역을 150회 이상 노래하면서 이 배역을 연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체득했다.

– 1966년생인 스페인의 바리톤 카를로스 알바레스(마르첼로와 성이 같긴 하지만 혈연관계는 없다)는 모차르트에서 알베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고 있지만 베르디 오페라가 그의 주특기이며, 그의 리골레토 연기는 베르디가 염두에 둔 캐릭터, 즉 비열한 궁정 어릿광대와 딸의 안위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라는 양면성을 대단히 잘 소화해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탁월한 베르디 전문 소프라노로 질다 역을 맡은 인바 물라 역시 뛰어난 가창으로 두 알바레스에게 뒤지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헤수스 로페스-코보스의 노련하고 안정적인 지휘는 모든 성악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무대감독 :** 그레이엄 비크

– **연주 :** 리세우 대극장 교향악단과 합창단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44 **[Blu-ray]**

베르디: 시몬 보카네그라

바리톤 토머스 햄슨(시몬 보카네그라), 페루치오 푸를라네토(야코포 피에스코), 다이넬라 가티가(지휘)

토머스 햄슨의 명연기로 〈시몬 보카네그라〉의 진가를 확인하라!

14세기의 제노바 총독 시몬 보카네그라의 정치적 갈등과 가족사의 비극을 다룬 〈시몬 보카네그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고 묵직한 남성 오페라의 걸작으로 손꼽히지만 바로 그 깊이와 무게야말로 이 오페라의 대중적 인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페라 마니아에게나 어울리는 대작이라면 어차피 그런 맛에 맞는 프로덕션이 필요하다. 1970년대의 라 스칼라 무대를 빛낸 조르지오 스트렐러의 연출이 그랬고 최근에는 베를린 샤우뷔네의 전설적 연출자이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감독으로 영입된 페터 슈타인의 프로덕션이 그렇다. 슈타인 프로덕션은 2000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 처음 선을 보여 큰 반향을 이끌어냈으며 2년 후 빈국립가극장에 그대로 옮겨져 역시 격찬을 받았다. 빈 공연에서는 바리톤 토머스 햄슨 (시몬 보카네그라)과 페루치오 푸를라네토 (야코포 피에스코)의 절창이 한몫했다. 특히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제한적 평가만을 받던 햄슨이 리트를 노래하듯 깊이 있는 가사 전달과 배역에 완벽하게 동화된 명연으로 찬사를 받았다. 거장 다이넬라 가티가 지휘하는 2002년 10월 실황.

[보조자료]

– 시몬 보카네그라는 1857년 초연되었다. 제노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도 그 라이벌 도시인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이 그 초연무대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시몬 보카네그라는 정적인 피에스코 가문의 마리아를 사랑하여 딸을 낳았으나 결혼 승락도 받지 못한 채 연인은 죽고 딸은 잃어버린다. 25년의 세월이 흘러 제노바 총독인 시몬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상봉하게 되고 오랜만에 생의 환희에 감격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가 진행되어 시몬은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피에스코 가문과 화해를 이루면서 죽음을 맞는다.

– 미국의 토머스 햄슨(1955~)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성의 바리톤으로 이름이 높다. 슈만과 말러 등 독일 리트에 정통하며 프랑스 오페라에서도 최고의 성가를 누렸으나 유독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중후한 고음보다는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어서 격렬한 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점점 더 연륜이 쌓이면서 드디어 베르디를 성공적으로 불러내는 중이고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연극적인 해석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46 **[Blu-ray]**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피가로)/ 다이아나 담라우(수잔나)/ 피에트로 스파뇰리(백작)/ 마르첼라 오르사티 탈라만카(백작부인)/ 모니카 바첼리(케루비노) 외/ 제라르 코르스텐/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조르조 스트렐레르의 고품격 〈피가로의 결혼〉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남긴 주옥같은 오페라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다. 1막에서 피가로가 부르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 2막에 등장하는 케루비노의 카바티나 '사랑의 괴로움을 아는 그대는', 3막의 백작부인이 노래하는 아리아 '그리운 시절은 가고'와 수잔나와 함께 부르는 '편지의 이중창'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전곡에 걸쳐 가득하다. 본 영상은 2006년 밀라노 라스칼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피가로의 한 사람인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와 귀족적인 풍모를 자랑하는 바리톤 피에트로 스파뇰리, 모차르트 히로인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다이아나 담라우, 우아한 백작부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마르첼라 오르사티 탈라만카 등의 이상적인 캐스팅을 자랑한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라 스칼라의 전설적인 연출가였던 조르조 스트렐레르의 1980년 프로덕션을 새롭게 리바이벌한 고전적이고도 우아한 무대다. 친절한 한글자막을 통해 고품격 〈피가로〉의 참 매력을 보다 손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보조자료]

– 조르조 스트렐레르(1921–97)는 20세기 후반 이탈리아 오페라계를 대표하던 최정상급 오페라 연출가였다. 그는 밀라노의 피콜로 테아트로를 통해 브레히트와 셰익스피어 연출가로 명성을 얻었고, 오페라 무대에서도 라스칼라를 비롯한 정상급 오페라하우스들을 오가며 유럽 최고의 오페라연출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그의 오페라연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꼽으라면 1971년의 전설적인 〈시몬 보카네그라〉, 1975년의 〈맥베스〉, 본 영상에 리바이벌된 1980년의 〈피가로의 결혼〉 등이 특히 널리 알려져 있다.

– 1969년 이탈리아 반도 중동부의 해안도시인 페스카라에서 태어난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는 1989년과 1991년에 토티 달 몬테 콩쿠르에서 연거푸 입상하면서 이탈리아 성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코지 판 투테〉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이래, 라스칼라, 빈 슈타츠오퍼,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 바스티유 국립오페라, 메트 등의 최정상급 오페라 무대들에서 아바도, 아르농쿠르, 가디너, 정명훈, 샤이, 무티, 게르기에프 등의 최고 거장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의 열연을 담은 오페라 영상물들 중에서 200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돈 조반니〉와 〈피가로의 결혼〉, 네트렙코, 가란차와 호흡을 맞춘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 등이 특히 큰 호평을 받았다.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48 **[Blu-ray]**

보이토: 메피스토펠레

새뮤얼 래미(베이스), 가브리엘라 베냐츠코바(소프라노), 마우리치오 아레나(지휘)

'샬리아핀 이후 최고의 메피스토펠레'가 들려주는 압도적인 절창!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극장 1989년 실황. 아리고 보이토는 베르디의 대본작가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가 대본과 음악 모두 직접 쓴 '메피스토펠레'는 괴테의 원작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독창적인 대본과 그에 거의 근접하는 완성도를 지닌 음악이 결합한 걸작이다. 이 공연은 로버트 카슨이 새뮤얼 래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으며, 카슨의 화려하고 포스트모던적인 연출이 돋보인다. 래미는 이 프로덕션에서 70회 이상 노래하면서 자신이 왜 '샬리아핀 이후 최고의 메피스토펠레'인가를 압도적으로 증명했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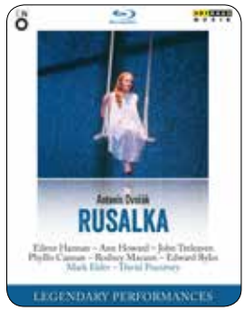
– 아리고 보이토(1842~1918)은 시인이자 베르디에게 '오텔로'와 '팔스타프'의 대본을, 폰키엘리에게 '라 조콘다'의 대본을 써준 대본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가 청년기에 써낸 걸작 '메피스토펠레'는 그가 아직 베르디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던 시기의 작품으로, 바그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보이토는 구노의 '파우스트' 공연에 관여한 뒤 이 오페라의 대본이 괴테의 원작에 비해 무척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대본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메피스토펠레'의 대본은 '파우스트'를 소재로 한 오페라 가운데 가장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음악 역시 보이토가 쓴 작품 가운데 그의 문학적 수준에 가장 근접하는 완성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 보이토는 이 작품 이후로 이보다 나은 작품을 쓰지 못했다. 1942년생인 미국의 베이스/베이스–바리톤 새뮤얼 래미는 로시니나 도니체티의 벨칸토 스타일뿐만 아니라 헨델이나 모차르트의 서정미는 물론 베르디나 푸치니의 극적인 배역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성악가이다. 특히 보이토의 '메피스토펠레'는 그의 장기 중의 장기로, 그는 이 배역을 20개 이상의 프로덕션에서 200회 이상 노래했다. 특히 로버트 카슨이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프로덕션에서는 70회 이상 노래하면서 '샬리아핀 이후 최고의 메피스토펠레'라는 평가를 확립했다. 이 1989년 실황은 바로 이 카슨의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제로 카슨의 화려하고도 포스트모던적인 연출은 주역을 맡은 래미의 존재를 최대한 부각하고 있다. 래미의 힘차고도 압도적인 가창은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다. 가브리엘라 베냐츠코바를 비롯한 다른 성악진도 뛰어난 가창으로 이 공연의 완성도에 기여하고 있다.

– **무대감독 :** 로버트 카슨

– **연주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50 **[Blu-ray]**

드보르자크: 루살카

에일렌 해넌(소프라노), 앤 하워드(메조소프라노), 마크 엘더(지휘)

드보르자크의 걸작 오페라가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새롭게 조명된다

1986년 영국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드보르자크의 '루살카'는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이후 최초의 진정한 체코 국민 오페라로 평가된다. 드보르자크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거의 흡사한 내용의 대본(결말만 다르다)에 극적이고 세련된 음악을 붙여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무대감독 데이비드 푼트니는 이 오페라의 배경을 빅토리아 시대의 보육원으로, 루살카를 첫사랑을 꿈꾸는 소녀로 설정했다. 주역을 맡은 에일렌 해넌은 자유롭고 순진하며 열정적인 연기로 연출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마크 엘더는 강렬하면서도 매우 서정적으로 지휘한다.

[보조자료]

– 드보르자크가 1900년에 작곡한 '루살카'는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이후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체코 국민 오페라로 평가된다. 야로슬라프 크바필이 쓴 대본은 동유럽 지방의 민간 전승에 기초해 쓴 대본은 사실상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거의 흡사하다. 적어도 숲의 요정 루살카가 왕자와 사랑에 빠진 뒤 버림받는다는 대목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마지막에 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루살카에게로 돌아가며, 배신의 대가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결말은 사뭇 다르다. 드보르자크는 자칫 진부할 수도 있는 내용의 대본에 대단히 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이고 세련된 음악을 붙여 작품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 영국의 뛰어난 오페라 전문 연출가이자 대본작가인 데이비드 푼트니는 이 오페라의 배경을 빅토리아 시대의 보육원으로 바꾸고, 루살카를 낭만적인 첫사랑을 꿈꾸는 가녀린 소녀로 설정함으로써 오페라의 줄거리에 좀 더 현실감을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원작의 초현실적인 몽환성과 거의 악몽에 가까운 공포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독창적이고 신비한 효과를 창출했다. 루살카 역을 맡은 에일렌 해넌은 자유롭고도 순진하며 열정적인 연기로 연출에 완벽하게 부응하며, 앤 하워드, 존 트렐리븐 등 조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마크 엘더는 강렬하면서도 풍부한 서정미가 돋보이는 해석으로 성악진을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무대감독 :** 데이비드 푼트니

– **연주 :** 영국 국립 오페라(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52 **[Blu-ray]**

브리튼: 글로리아나

사라 워커(소프라노), 앤소니 롤프 존슨(테너), 마크 엘더(지휘)

엘리자베스 1세의 영광 뒤에 가려진 비극적 사랑 이야기

1984년 런던 콜리세움 실황. 브리튼은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오페라 '글로리아나'를 썼다. 엘리자베스 1세와 에식스 백작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이 오페라는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가가 나빴지만, 결국 브리튼의 걸작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1984년 프로덕션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투어도 진행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곡의 평가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콜린 그레이엄은 낭비가 없으면서도 역사적 맥락에 충실한 연출을 보여주며, 성악진의 열연은 이 프로덕션이 왜 그토록 성공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조자료]

– 브리튼은 1953년에 열릴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할 만한 작품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여왕과 이름이 같은 엘리자베스 1세를 다룬 오페라 '글로리아나'를 썼다('글로리아나'는 엘리자베스 1세의 별명이었다). 이 오페라는 엘리자베스 1세와 그녀의 총신이었던 에식스 백작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라이턴 스트래치의 소설 '엘리자베스와 에식스 : 비극적 역사'에 기초해 쓴 것으로, 3막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비극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다 엘리자베스 1세를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닌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축전적인 분위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결국 이 작품은 브리튼의 몇 안 되는 실패작 중 하나가 될 것처럼 보였다.

– 그러나 '글로리아나'는 결국 브리튼의 걸작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1984년 프로덕션이 아니었다면 이 곡의 평가가 바로잡히는 것은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다. 마크 엘더가 지휘한 이 프로덕션은 영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뉴욕, 뉴올리언스, 텍사스 등지에서 성황리에 공연하는 등 대서양 양쪽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주역을 맡은 사라 워커는 미묘한 발성과 동작으로 위엄 있으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엘리자베스 여왕의 내면을 훌륭하게 연기했으며, 무대감독 콜린 그레이엄은 낭비가 없으면서도 역사적 맥락에 충실한 연출을 보여준다. 역사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공연 자체로도 매우 완성도 높은 영상물이다.

– **무대감독 :** 콜린 그레이엄

– **연주 :** 영국 국립 오페라(잉글리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54 [Blu-ray]

바그너: 탄호이저

르네 콜로(테너), 발트라우트 마이어(소프라노), 베른트 바이클(바리톤), 주빈 메타(지휘)

미니멀한 연출 속에서 펼쳐지는 스타 바그네리안 군단의 열연

1995년 바이에른 주립 오페라 극장 실황. 고전 오페라를 파격적으로 해석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연출가 데이비드 앨든이 무대 감독을 맡아 미니멀한 무대와 의상으로 선명한 시각적 인상을 준다. 앨든은 세속적 쾌락과 정신적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탄호이저를 세속적 성공과 이상 사이에서 번민하는 예술가의 상징으로 파악했다. 주역을 맡은 르네 콜로뿐만 아니라 베누스와 엘리자베트 역 모두 맡아 열연한 발트라우트 마이어, 볼프람 역을 맡은 베른트 바이클 등 모두 시대를 주름잡은 최고의 바그너 전문 성악가다운 열연을 보여준다.

[보조자료]

– 미국 출신인 데이비드 앨든인 쌍둥이 형제인 크리스토퍼 앨든과 마찬가지로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의 오페라 레퍼토리는 상당 부분이 겹치며 고전 오페라를 파격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크리스토퍼가 등장인물의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 데 비해 데이비드는 정치적인 해석을 부여하거나 등장인물을 희화화하곤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앨든은 미니멀한 무대와 의상으로 선명한 시각적 인상을 주며, 세속적 쾌락과 정신적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탄호이저를 세속적 성공과 이상 사이에서 번민하는 예술가의 상징으로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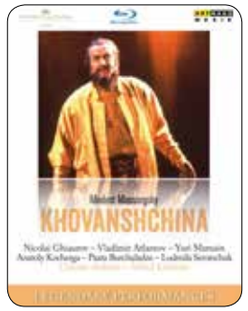
– 주역 성악가들은 당시 끌어모을 수 있는 최고의 바그너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의 발터, 〈니벨룽의 반지〉의 지크프리트 등 바그너 헬덴테너 배역들로 잔뼈가 굵은 르네 콜로는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혼신의 힘을 다한 열연을 펼친다. 1956년생인 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 역시 쿤드리(〈파르지팔〉), 이졸데(〈트리스탄과 이졸데〉), 오르트루트(〈로엔그린〉), 프리카 및 지클린데(〈니벨룽의 반지〉) 등 숱한 배역을 맡은 바 있다. 마이어는 여기서 음유시인 탄호이저를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여신 베누스와 그를 정신적으로 승화하는 엘리자베트 1인 2역을 맡아 연기했다. 1942년생인 바리톤 베른트 바이클 역시 오랜 세월 바그너 배역들을 맡은 베테랑이며, 볼프람은 그가 1972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할 때 부른 배역이기도 하다.

– 주빈 메타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바그너를 지휘했고, 1998~2006년에 걸쳐 바이에른 주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지냈다. 이 공연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때 오페라단과 구축한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메타가 음악감독 자리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연출, 지휘, 성악진 어느 면에서 보나 믿음직한 면면들이 아닐 수 없다.

– **무대감독 :** 데이비드 앨든

– **연주 :**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 및 주립 오페라 합창단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Arthaus 109160 [Blu-ray]

무소르크스키: 호반시치나

니콜라이 갸우로프(베이스), 블라디미르 아틀란토프(테너),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갸우로프와 아바도 – 무소르크스키를 위한 이상적인 조합

1989년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무소르크스키는 표트르 대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그려낸 이 대작 오페라를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었다. 불가리아 출신의 위대한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가 표트르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대표인 이반 호반스키 공 역을, 러시아 출신의 관록 있는 테너 블라디미르 아틀란토프가 이반의 아들 안드레이 역을 맡아 인상적인 가창을 들려준다. 알프레드 키르히너의 연출은 사실성과 상징성을 훌륭하게 조화시켰으며,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실로 대가다운 솜씨로 무소르크스키의 장중한 악상을 막힘없이 풀어나간다.

[보조자료]

– 무소르크스키는 대작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를 완성한 뒤 표트르 대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또 하나의 장대한 역사극을 구상했다. 이것이 〈호반시치나〉로, 무소르크스키는 '완성했다'고 선언한 뒤에도 수정과 가필을 계속했으며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사망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등 여러 작곡가가 보필 작업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는 몇 가지 버전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쇼스타코비치가 원작의 정신을 존중해 작업한 버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곡의 제목인 '호반시치나'는 '호반스키 일당'이라는 뜻으로, 이 오페라의 주인공인 이반 호반스키가 이끄는 세력을 가리킨다. 이들은 표트르 대제의 개혁에 반감을 품고 저항한다. 여기에 맞서 황제의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또 역시 황제와 대립하고 있지만 호반스키 일파와는 별개의 세력인 러시아 정교회 분리파('구신도'로 불린다)사 있다. 이 세 세력이 러시아의 운명을 놓고 다투지만 결국 표트르 대제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오페라는 〈보리스 고두노프〉와 마찬가지로 남성 성악가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주역인 이반 호반스키 역은 이 오페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아마도 불가리아 출신으로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베이스 중 한 손에 꼽히는 인물인 니콜라이 갸우로프만큼 이 배역에 적격인 사람도 찾기 힘들 것이다.

– 1939년생으로 러시아 출신인 테너 블라디미르 아틀란토프는 갸우로프보다 불과 열 살이 어리지만 뛰어난 연기로 이반의 아들 안드레이 역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구신도의 지도자인 도시페이 역을 맡은 파타 부르출라제(베이스)나 마르파 역의 루드밀라 셈츄크(메조소프라노) 등 다른 배역들도 고른 완성도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배역의 의상은 역사적 배경에 충실하게 재현했으면서도 군중 장면은 대담한 생략으로 연출해 사실성과 상징성을 훌륭하게 조화시킨 알프레드 키르히너의 연출은 공연 당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공연이 열린 1989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카라얀에 이어 베를린 필하모니의 상임지휘자로 선임된 해이기도 하다. 이 기념할 만한 해에 열린 공연에서, 아바도는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지휘자이며 베를린 필의 수장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가를 최선을 다해 증명하고 있다. 그는 베를린 필 상임 시절에 녹음한 음반에서도 자신이 무소르크스키 전문가임을 보여주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공연에서 작곡가 특유의 장중한 악상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 **무대감독 :** 알프레드 키르히너

– **연주 :**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 슬로박 필하모니 합창단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37689 [DVD]
Dynamic 57689 [Blu-ray]

베르디: 맥베스

주세페 알토마레(맥베스)/ 디미트라 테오도시우(맥베스부인)/ 조르조 주제피니(방코)/ 다리오 디 비에트리(막두프)/ 에르네스토 페티(말콤) 외/ 주세페 사바티니/ 나바로 테아트로 코치아

이탈리아 공포영화의 거장 다리오 아르젠토가 만들어낸 잔혹한 무대의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는 베르디가 일생 동안 꿈꿨던 무대예술의 지향점이었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만년의 두 걸작인 〈오텔로〉와 〈팔스타프〉로 놀라운 결실을 맺었지만, 그 시작은 1847년에 초연되었던 〈맥베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렬한 권력욕과 함께 우유부단함 또한 갖고 있었던 맥베스와 그를 능가하는 강렬한 야망의 소유자였던 맥베스부인의 흥망성쇠를 드라마틱하게 다룬 이 작품은 특히 맥베스부인이 펼치는 광란의 몽유병 장면이 유명하다. 본 영상물은 2013년 10월 밀라노 인근의 소도시인 노바라의 테아트로 카를로 코치아에서 있었던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일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 극장의 공연이지만, 이 프로덕션에 집중해야할 이유가 있다. '페노미나', '서스페리아'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공포영화의 거목 다리오 아르젠토의 손끝을 통해 연출된 무대는 전라의 마녀들과 낭자한 선혈, 그리고 참수된 목이 나뒹구는 충격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며, 라 스칼라의 주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상급 테너 주세페 사바티니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조자료]

– 베르디는 〈맥베스〉에 앞서서 밀라노를 위해 다섯 편, 베네치아를 위해 두 편, 로마와 나폴리를 위해 각각 한 편의 오페라를 완성했었다. 〈맥베스〉는 그가 피렌체의 페르골라 극장을 위해 최초로 완성한 작품이기도 하다. 초연은 1847년 3월 14일 같은 극장에서 이뤄졌고, 이 작품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열렬했다. 베르디는 이 큰 성공에 고무되어 한 때 그의 장인이었으며, 든든한 후원자였던 안토니오 바레치에게 이 오페라를 헌정하였다. 베르디는 1865년에 파리의 관객들을 위해서 프랑스어 대본을 기반으로 이 작품을 개작하기도 했다.

– 다리오 아르젠토(1940년생)는 마리오 바바, 루치오 풀치 등과 더불어 이탈리아 호러영화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70년 '수정 깃털의 새'로 데뷔한 이후, '서스페리아' 연작, '인페르노', '페노미나', '스탕달 신드롬' 등의 독특한 분위기의 호러 영화들을 연출했으며, 특히 공포영화의 한 분파인 지알로(Giallo) 장르의 대가로서 확실한 명성을 확보하였다. '여왕 마고', '트리플 X' 등의 영화로 낯익은 여배우 아시아 아르젠토가 그의 딸이다.

– 본 영상물에서 지휘를 맡은 주세세 사바티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리릭 테너의 한 사람으로서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이름이다. 1987년 스폴레토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라 스칼라, 빈 슈타츠오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메트 등의 일급 무대들을 섭렵하였고, 자국의 오페라들은 물론, 마스네나 오베르, 오펜바흐 등의 프랑스 오페라들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보였었다. 2013년에는 빈 슈타츠오퍼로부터 캄머쟁거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Dynamic 37728 [DVD]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의 황금시대 1집 – 2편의 다큐멘티러 "First Rehearsal Today" & "Yesterday & Today"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의 황금기를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들

이탈리아는 오페라의 나라답게 저마다의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들이 전 국토 곳곳에 산재해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극장을 꼽으라면, 십중팔구는 밀라노의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를 선택할 것이다. Dynamic에서는 알라 스칼라의 전성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일련의 16mm 필름들을 정성껏 복원하여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의 황금시대'라는 타이틀의 3장의 DVD로 발매할 예정이다. 시리즈의 첫 출시작인 본 신보에는 1981/82 시즌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와 조르조 스트렐레르의 연출로 라 스칼라의 무대에 올려졌던 역사적인 바그너의 〈로엔그린〉 프로덕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영상들과 동 프로덕션에서 타이틀 롤을 노래했던 불세출의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와의 인터뷰를 함께 담은 '오늘 첫 리허설'(Oggi Si Prova), 그리고 전설의 디바들인 마리아 칼라스와 줄리에타 시묘나토의 라 스칼라에서의 활약상, 저명한 연출가 루카 론코니와 위대한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어제와 오늘'(Ieri e Oggi)이 수록되었다.

Dynamic 37729 [DVD]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의 황금시대 2집 레나타 테발디와 줄리에타 시묘나토, 라 스칼라 발레 스쿨, 피가로의 결혼 리허설 외

레나타 테발디와 줄리에타 시묘나토가 전하는 라 스칼라의 황금시대

이탈리아에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오페라극장들이 산재해있지만, 단 하나의 극장을 꼽으라면 십중팔구는 밀라노의 라 스칼라를 선택할 것이다. Dynamic에서는 스칼라의 전성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일련의 16mm 필름들을 정성껏 복원하여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의 황금시대'라는 타이틀의 3장의 DVD로 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출시작인 본 신보는 라 스칼라의 다양한 이면을 다루고 있다. 먼저 유럽 정상급 발레단의 하나인 라 스칼라 발레단의 든든한 기초인 라 스칼라 발레학교를 찾아서 무용 꿈나무들의 교육현장을 이 발레단 출신의 슈퍼스타인 루치아나 사비냐노의 인터뷰와 함께 담았고, 1981년 시즌에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와 조르조 스트렐레르의 연출로 공연되었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의 준비과정이 흥미롭게 포착되었다. 이 극장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세계적인 프리마 돈나들인 레나타 테발디와 줄리에타 시묘나토의 인터뷰와 더불어 1973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이 극장을 열렬히 후원하고 있는 서포터 단체인 'Gli Amici del Loggione'를 소개하는 영상까지 함께 수록되었다.

Opus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1171D [DVD]
OpusArte OABD7169D [Blu-ray]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베네라 기마디에바(비올레타)/ 마이클 파비아노(알프레도)/ 타시스 크리스토야니스(제르몽)/ 한나 힙(플로라) 외/ 마크 엘더/ 런던 필하모닉

미모의 러시아 소프라노 베네라 기마디에바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무대

베르디가 완성한 프라마 돈나 오페라인 〈라 트라비아타〉는 전 세계적으로 공연 빈도 1,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지만, 1853년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을 당시에는 관객들의 반응이 지금과 크게 달랐다. 이후 2막과 3막의 일부를 수정하고 극의 시대적 배경을 보다 과거로 옮겨놓는 등의 개작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작품은 인기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인기 오페라답게 그간 여러 영상물들이 연이어 출시되었지만, 2014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에 주목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본 프로덕션을 통해 일약 오페라계의 새로운 스타로 등극한 러시아 출신의 미모의 소프라노 베네라 기마디에바의 강렬한 열연이다. 영국의 유력지 Guardian은 본 오페라에서의 그녀의 활약상을 두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존재감, 베네라 기마디에바는 '전율' 그 자체다."라고 극찬하였다. 작품의 드라마틱한 풍모를 훌륭히 드러낸 거장 마크 엘더의 지휘와 런던 필의 중후한 사운드가 새로운 디바의 활약을 든든하게 뒷받침하였다.

[보조자료]

–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는 '춘희'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주세페 베르디의 인기 오페라다. 원작은 알렉상드르 뒤마(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남긴 같은 이름의 대문호의 아들)의 소설 '동백꽃 여인'(La Dame aux Camelias)이며, 프랑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완성한 리브레토를 사용하였다. La Traviata라는 단어의 뜻은 타락한 여자, 또는 길을 잃은 여자라는 의미이다. 오페라의 초연은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 오페라는 〈에르나니〉, 〈아틸라〉, 〈리골레토〉에 이어서 베르디가 이 극장을 위해 완성한 네 번째 오페라에 해당한다. 애초에 피아베와 베르디는 당대인 19세기 후반을 오페라의 배경으로 삼으려했지만, 라 페니체 극장 측의 반대로 1700년 무렵의 과거로 시대적 배경을 바꿔야만 했다. 오페라의 초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합창이 덧붙은 이중창 '축배의 노래', 유명 프리마돈나들의 필수 레퍼토리인 '아 그대인가', 제르몽의 아리아 '프로벤자 네 고향으로',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함께 부르는 이중창 '파리를 떠나서' 등의 인기곡들이 오페라의 곳곳에 담겨있다.

– 본 영상물에서 타이틀 롤을 노래한 미모의 러시아 소프라노 베네라 기마디에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스베틀라나 고렌코바를 사사하였다. 2008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오페라의 멤버로 활동하였고, 2011년부터는 볼쇼이 오페라의 솔로이스트로 활약 중이다. 2010년에 샬리아핀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와 무소륵스키 등의 러시아 오페라들 외에도 비올레타와 아미나로도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본 영상물에 수록된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의 〈라 트라비아타〉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OpusArte OA1177D [2DVDs]
OpusArte OABD7171D [2Blu-ray]

바그너: 탄호이저

토르스텐 케를(탄호이저)/ 카밀라 닐룬드(엘리자베트)/ 마르쿠스 아이헤(볼프람)/ 연광철(헤르만)/ 로타르 오디니우스(발터) 외/ 악셀 코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생경한 무대 컨셉에도 불구하고 강한 저력을 발휘한 연광철의 자랑스러운 활약상

과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통해 제작된 오페라 영상물들은 공연실황이 아닌 드레스 리허설을 촬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OpusArte에서는 페스티벌 주최측과의 긴밀한 협조와 무선 카메라와 같은 최신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고스란히 포착된 실제 공연실황들을 연이어 영상물로 출시하고 있다. 제바스티안 바움가르텐이 연출한 〈탄호이저〉는 2011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나, 아주 먼 미래에 유전자가 변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생경한 무대 컨셉이 객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지휘자와 일부 출연진이 교체되는 진통을 거치면서 이 프로덕션은 예정보다 이른 2014년에 마무리되었는데, 본 영상물에는 바로 그 마지막 해인 2014년의 공연실황이 수록되었다. 난해한 연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지만, 지휘자 악셀 코버와 토르스텐 케를, 카밀라 닐룬드 등이 중심이 되어서 빚어낸 음악적인 성과만큼은 크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헤르만 영주를 맡은 연광철에 대한 객석의 열렬한 반응은 이 위대한 음악축제에서 그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실감하게 해준다.

[보조자료]

– 후일 선보였던 〈마이스터징거〉가 16세기의 실존 인물인 한스 작스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탄호이저〉 역시 13세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네징거를 소재로 완성한 작품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1245년부터 1264년 사이에 그의 이름으로 된 시들이 여럿 등장한다. 그가 베누스의 소굴인 베누스베르크를 발견하여 그 곳에서 환락의 세월을 보내다가 회개하고 교황 우르반 4세의 용서를 받기 위해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며, 이 전설이 바로 오페라 〈탄호이저〉의 중심내용이 되었다.

– 본 영상물에서 타이틀 롤을 노래한 토르스텐 케를은 처음 오보에연주자로 음악계에 입문하였으나, 이후 성악에서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만개한 독일의 신예 헬덴 테너이다. 빈 슈타츠오퍼, 메트, 로열 오페라 코벤트 가든,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파리 바스티유 등의 일급 오페라 무대들을 두루 섭렵하였고, 바이로이트에는 1996년 〈마이스터징거〉의 단역인 발타자르 초른 역할로 데뷔하였다. 2011년 시즌에 처음 공개되었던 제바스티안 바움가르텐의 〈탄호이저〉 프로덕션에 처음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가수는 스웨덴 출신의 라르스 클레베만이었지만, 그가 하차한 이후 이듬해부터는 토르스텐 케를이 그 자리를 성공적으로 대신하면서 정상급 헬덴 테너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출시된 〈리엔치〉 영상물 두 편 모두에서 타이틀 롤로 출연하기도 했다.

OpusArte OA1170D [2DVDs]
OpusArte OABD7168D [Blu-ray]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케이트 로열(원수부인)/ 타라 이러프트(옥타비안)/ 테오도라 게오르규(조피)/ 라르스 볼트(옥스)/ 미하엘 크라우스(파니날) 외/ 로빈 티치아티/ 런던 필하닉

슈트라우스의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화려한 프로덕션

〈장미의 기사〉는 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들 중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희극적인 소재를 간결한 화성과 친근한 선율로 그려낸 이 작품을 통해 슈트라우스는 바그너의 그림자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제목에 등장하는 '장미의 기사'는 약혼 잔치 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약혼녀에게 바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빈의 상류층에서 유행했던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14년 6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 작곡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되었던 리처드 존스의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원수 부인을 노래한 정상급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의 과감한 노출연기와 패기의 젊은 지휘자 로빈 티치아티의 섬세하고도 명쾌한 해석으로 오페라 애호가들 사이에 큰 화제를 모았었다. 타라 이러프트가 연기한 옥타비안은 유니섹스한 외모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성악적인 면에서만큼은 나무랄 곳 없는 활약을 보여주며, 청순한 미모의 소프라노 테오도라 게오르규는 요조숙녀다운 조피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조자료]

– 슈트라우스와 호프만스탈의 첫 협력 작품이었던 〈엘렉트라〉는 그리스 신화에 기반을 둔 자극적인 소재를 불협화음을 과감하게 사용한 대편성의 강렬한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당대 음악계에 큰 충격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들 콤비는 차기작에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빈 상류층의 우아한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잘 그려낸 〈장미의 기사〉였다. 호프만슈탈의 대본은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빈을 배경으로 삼았다. 젊은 귀족 옥타비안은 원수부인의 숨겨놓은 미소년 애인이다. 졸부 파니날의 부를 노리고 그의 딸 조피와의 결혼을 노리는 옥스남작은 당시의 풍습대로 옥타비안을 장미의 기사로 내세운다. 옥타비안은 파니날의 집에로 찾아가 은으로 만든 장미를 전하며 옥스남작의 사랑을 조피에게 전한다. 하지만, 옥타비안과 조피는 만나자마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옥타비안은 여자로 변장하여 방탕한 남작을 맘껏 골려주고, 결국에 가서는 조피는 원수부인의 도움을 통해서 옥타비안과 맺어지게 된다는 희극적인 내용의 오페라다.

– 본 영상물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연기로 원수부인을 열연한 영국의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은 대중가수인 아버지와 모델 겸 댄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004년 캐슬린 페리어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그는 같은 해에 〈마술피리〉의 파미나로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 데뷔하였고, 이후 오페라 무대와 리트 리사이틀 양쪽 모두에서 호평을 받으며 스타급 성악가로 급부상하였다. 2007년에는 로얄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의 영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OpusArte OA1181D [DVD]
OpusArte OABD7174D [Blu-ray]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나탈리아 오시포바(오데트/오딜)/ 매튜 골딩(지크프리트)/ 개리 아비스(로트바르트)/ 보리스 그루친/ 로얄 오페라 오케스트라

영국 로열 발레단의 새로운 주역들이 멋진 호흡으로 빚어낸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1877년 초연에서 실패했지만, 작곡가 사후에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새롭게 안무를 담당함으로써 크게 성공하였다. 이 발레는 서유럽에서 인기를 끈 최초의 러시아 발레이며, 특히 영국 로열 발레단의 핵심 레프트와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 로열 발레의 〈백조의 호수〉 프로덕션은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안무를 기반으로, 이 발레단을 거쳤던 영국 무용계의 거목들인 프레데릭 에쉬튼, 피터 라이트, 데이비드 빈틀리, 앤소니 도웰 등의 손길이 조금씩 덧입혀졌다. 남미 출신의 스타 무용수들인 마리아넬라 누네스와 티아고 소아레스가 주역을 맡았던 2009년의 공연실황에 이어서 로열 발레단이 완성한 또 하나의 〈백조의 호수〉가 동일한 레이블을 통해 출시되었다. 2015년 3월의 무대를 담은 것으로, 각각 볼쇼이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을 거쳐서 현재 로열 발레단의 수석으로 나란히 활약 중인 나탈리아 오시포바와 매튜 골딩이 두 주인공을 열연하였다. 한국계 발레리나 최유희가 2009년 실황에 이어 본 신보에서도 1막의 파 드 트루아에 출연한다.

Aulos Media

www.aulosmedia.com

Aulos Media ADVD 066 [DVD]

헤르만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모비 딕(Moby Dick)

[해외 리뷰]

프랭크 자마코나의 영상은, 레오나드 포이야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감동적인 힘을 고스란히 포착하고 있다. 패트릭 서머스의 노련한 캐스팅과 탁월한 리더쉽은 보컬뿐만 아니라 극적인 요소에서도 최고의 앙상블을 보여준다.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 쥬디스 말라프론데, 오페라 뉴스

케네디센터 공연을 볼 수 없다면, 유로아트의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DVD로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다. 대형스크린으로 본다면, 오페라 극장에서의 현장감도 느껴질 것이다. 오페라 모비딕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즐길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에 함께 갔던 16살 딸아이도 매우 좋아했고, 집에서 DVD를 틀었을 때 14살, 9살 먹은 두 아이 역시, 엔딩크레딧이 끝날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 로버트 R 라일리

모비딕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중요 오페라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를 주제로 이미 정평이 난 오페라 '빌리 버드'Billy Budd), '사랑은 저 멀리'(L'amour de loin)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작품이다.
– 그라모폰 매거진, 2014년2월 – 에디터즈 초이스

낙소스 코리아 추천도서

-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사로잡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
간행물윤리 위원회 선정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제러미 시프먼 지음
임선근 옮김
155×220mm
280쪽
20,000원
위대한 작곡가이자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매혹적인, 그러나 정의하기 어려운 그의 참모습을 보다.

베토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김병화 옮김
155×220mm
288쪽
20,000원
음악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와 맞붙어 싸웠던 영웅, '악성 베토벤', 키가 작다는 것만 빼면 모든 면에서 거인이었다.

하이든, 그 삶과 음악
데이비드 빈거스 지음
김병화 옮김
155×220mm
248쪽
20,000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일생을 통해 18세기 유럽의 역사와 음악을 개괄해 본다.

멘델스존 그 삶과 음악
닐 웰본 지음
김병화 옮김
155×220mm
288쪽
20,000원
평온가정이 뿜은 음악사 최고의 천재. 38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믿기 어려운 기록들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의 일생을 파고든다.

쇼팽, 그 삶과 음악
제러미 니콜러스 지음
임희근 옮김
155×220mm
368쪽
20,000원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마음, 피아노의 영혼. 39년의 짧은 삶을 오직 피아노를 위해 살았던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자 쇼팽을 만난다.

말러,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임선근 옮김
155×220mm
260쪽
20,000원
클래식 애호가의 폭넓은 사랑과 경이를 받는 말러, 인간 말러의 기쁨과 슬픔, 그의 예술적 원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차이콥스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김형수 옮김
155×220mm
260쪽
20,000원
괴팍한 천재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형화음악을 예고하는 러시아의 서정, 섬세하고 여혁적인 예술가 차이콥스키를 만난다.

바그너,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이석호 옮김
155×220mm
276쪽
20,000원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재능으로, 반유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그너의 불꽃 같은 삶과 음악을 만난다.

- 음반 2장과 함께 읽는 〈클래식, 시대와의 만남〉 시리즈

클래식, 고음악과의 만남
루시엔 엔킨스 지음
임선근 옮김
150×220mm
124쪽
20,000원
교회음악과 중세음악은 물론, 음악에 적극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싣기 시작하며 인쇄술의 발전으로 음악의 대중확산에 기폭제가 되었던 르네상스 음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바로크시대와의 만남
클라이브 붕거 해밀턴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160쪽
20,000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음악으로,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의 작품을 통해 '바로크'의 원뜻인 '기괴하다'는 조롱이 사라지고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유럽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클래식, 고전시대와의 만남
스티븐 존슨 지음
김지향 옮김
150×220mm
128쪽
20,000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초까지의 음악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걸작들, 베토벤의 원숙한 첫 작품이 탄생했다. 사랑과 전쟁,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추구한 고전시대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낭만시대와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리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184쪽
20,000원
19세기에 성행했던 음악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연주 기법, 그리고 주제와 이념을 소설과 미술 등에서 찾는 표제음악이 발전했다.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이 있다.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리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224쪽
20,000원
전통적 표현 수단과 결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활발했던 20세기의 음악으로, 쇤베르 글래스, 쇼스타코비치, 에시랑 등을 통해 무연성 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등을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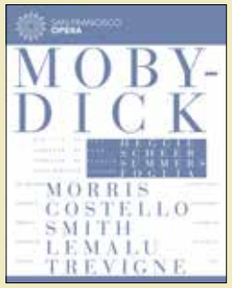
출판사 : PHONO
판매처 :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클래식 음반사 Naxos의 한국지사, 낙소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구독 및 관련사업, 음원유통, 라이센싱 업무 등에 관해서는 낙소스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naxos.co.kr | twitter.com/naxoskorea
Naxos Korea (낙소스 코리아) 02-717-1070

NAXOS Music Library · NAXOS Spoken Word Library · NAXOS Music Library Jazz · Naxos Video Library · NAXOS Web Radio · NAXOS AudioBooks · YouTube · twitter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Naxos를 비롯한 Warner Classics, Teldec, EMI Classics...등 다양한 레이블의 1백만여 곡의 음악을 스트리밍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낙소스 코리아)

엘리사 리 콜조넨은 한국 세종 상을 수상하고 칼 플레쉬 콩쿨에서 실버메달을 획득하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내한공연도 수차례 가졌다.
콜조넨은 '하트브레이크'라는 이 음반에 애잔한 소품들을 수록했다.
쇼팽 〈녹턴〉과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리스트 〈위안〉**, **마스네 〈타이스〉**, **차이코프스키 〈감상적인 왈츠〉**, **라벨 〈파반〉** 등 최고의 작품들에 어느 것 하나 빠놓을 수 없는 명연을 들려준다.
홍난파의 〈사랑〉은 놓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표지사진
헤르만 멜빌의 소설
모비 딕(Moby Dick) DVD

〈아울로스뉴스〉 2015년 10월호
통권 제 63호 발행 2015년 10월 2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며,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지를 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또는 기타 안내 가능합니다.